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이공본풀이의 敍事構造와  
通過儀禮的 意味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양 용 준

2014년 8월



# 이공본풀이의 敍事構造와 通過儀禮的 意味 研究

指導教授 현 승 환

양 용 준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년 8월

양용준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8월



## 이공본풀이의 敍事構造와 通過儀禮的 意味 研究

양 용 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현 승 환

通過儀禮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存在論的인 상태, 신분, 지위의 변화 과정으로, ‘죽음’과 ‘생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통과의례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죽음과 생성의 원리는 고대인들이 自然을 바라보며 얻은 자연의 법칙이자 그들의 깨달음이다. 종교적 제의나 신화가 융성하던 시대의 인간은 신과 같은 ‘영구적인 존재’로 남아있길 원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죽음과 재생을 동반하는 儀禮的 행위를 통해 신적인 행위를 모방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의례적 행위에서 구송되는 <이공본풀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서사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통과의례와 그 의미를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본들을 소설의 구성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이공본풀이>의 서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는 ‘떠남 - 시련 - 좌정’의 서사적 흐름을, 부분적으로는 ‘고난 - 고난해결’의 구조를 보임으로써 웅장하면서도 숭고한 미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공본풀이>의 중요 화소들은 모두 주인공들의 상태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텍스트에 통과의례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서사구조와 비교함으로써 서사적 흐름에 따라 인물의 상태 및 지위의 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 주인공들의 상태 변화는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련’은 신으로 좌정할 수 있는 정당성을 획득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들의 삶의 목표인 서천꽃밭은 ‘죽음’과 ‘재생’의 원리가 공존하는 깨달음의 공간이자 수평적 세계이며, 운명 극복의 의지가 반영된 공간으로서 그 의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목 차>

### <국문초록>

|                             |    |
|-----------------------------|----|
| I. 서론 .....                 | 1  |
| 1. 연구의 필요성 .....            | 1  |
| 2. 선행연구 검토 .....            | 3  |
| 3. 연구 범위 및 방법 .....         | 6  |
| II. 이공본풀이의 敘事構造 .....       | 9  |
| 1. 서사 단락의 比較 .....          | 10 |
| 2. ‘떠남 - 시련 - 좌정’의 敘事 ..... | 28 |
| 3. ‘고난 - 고난해결’의 崇高美 .....   | 30 |
| III. 이공본풀이에 드러난 通過儀禮 .....  | 32 |
| 1. ‘聖俗’과 存在論的 變化 .....      | 33 |
| 2. 通過儀禮의 과정과 普遍性 獲得 .....   | 35 |
| 3. 이공본풀이에 드러난 通過儀禮 .....    | 39 |
| IV. 이공본풀이의 通過儀禮的 意味 .....   | 53 |
| 1. 人物變化와 運命克服 .....         | 53 |
| 2. 巫俗的 試鍊과 正當性 獲得 .....     | 55 |
| 3. 서천꽃밭과 再生 .....           | 56 |
| V. 결론 .....                 | 59 |
| <참고문헌> .....                | 62 |
| <Abstract> .....            | 65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이공본풀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주로 내륙지방의 다른 텍스트들과 비교하여 분석하거나, 또는 상호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집중된 점이 적지 않았다. 즉 그 동안의 연구들은 신화 자체의 의미를 고찰하려는 노력 면에서는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공본풀이> 자체의 의미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문학의 원형이라는 신화가 갖는 보편성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반 쾨넵(Arnold van Gennep)의 ‘通過儀禮’의 이론을 연구의 방법으로 선정하였는데, 通過儀禮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의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시대를 막론하고 전 인류의 삶에 나타나는 보편적 요소이며,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자연과 우주의 현상에 대한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함축되어 있는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자연의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죽음’과 ‘생성’의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어 나타남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인간 역시도 자연의 일부이므로 죽음과 생성이라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을 동반하는 행위를 수행하여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를 모방하게 되는데, 특히 입사식을 통한 존재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체험을 통해서 드러난다. ‘通過儀禮’는 이러한 인간의 존재론적 변화 과정을 구조화한 것이다.

고대인의 사고방식이 함축된 통과의례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얻은 깨달음이나 법칙을 말이나 기호, 행위 등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다. 예컨대 구비문학인 神話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양식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신화에는 자연의 법칙인 ‘죽음’과 ‘생성’의 과정이 담겨 있다. 이는 특히 신화 속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살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서사가 전개됨에 따라 존재론적으로 상태의 변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 가령 부모에게 버림당한 공주가 위대한 모험을 통해 신으로 좌정된다거나, 또는 꿈이 금기를 지킴으로써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는 등의 이야기들은 모두 주인공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러한 주인공의 상태,

또는 지위에 관한 변모과정은 '죽음'과 '생성'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통과의례의 과정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신화를 넘어 다수의 서사문학과 영화,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르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나타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시대와 인류의 종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난다.

문학적 측면에서 통과의례는 인물의 상태나 지위의 변화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특히 영웅의 일대기를 다룬 서사문학에 있어서 하나의 구조적 모형을 보임으로써, 보편적인 서사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조셉 캠벨이 통과의례를 신화의 기초적인 모형으로 보고 영웅신화의 구조로 재정립한 점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주인공이 변모해가는 과정을 근간으로 하는 서사구조의 원형적 토대는 '通過儀禮'로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은 신화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신화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이유는 신화가 구전되는 이야기로서 말이 생기면서부터 발생한 서사문학의 원초적인 양식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정한 작가가 없는 신화는 화자나 청자가 이야기에 직접 참여하여 변화시켜 나가는 형태의 열린 텍스트 구조로서, 일반적인 기록문학과는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신화는 역사적인 각 시기의 변화나 민족 문화에 따라서 개인 작가들의 많은 문학 작품 속에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고 발전된다. 신화 속에는 아직 분화되지 않은 문화와 인식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신화는 당시 사람들의 활동, 정신상태, 문화현상, 사회구조, 자연 현상의 해석, 토tem의 기원 등에 관한 이야기를 미분화된 상태로 담는다. 그리고 이는 역사적 단계를 거치면서 문화나 예술 장르로 세분화되어가게 된다. 이렇듯 신화는 문자의 등장과 더불어 창조되는 문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즉 세계와 자연의 본질적인 현상이나 종교적 측면에서의 인간 의식의 기원을 가진 신화는 문학 작품 속에서 문학의 원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신화의 서사구조와 통과의례의 과정을 비교하고, 나아가 화소에 드러난 통과의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은 주인공의 상태 및 지위의 변화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서사구조의 원형적 모형을 밝히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문학의 원형이라는 신화의 보편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신화가 고대인의 사고방식이 함축되어 있는 문학양식임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제주도 큰굿 열두거리에서 구송되는 무속신화인 '본풀이'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본풀이는 텍스트의 외적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지방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주도 교유의 통과의례 행위에 해당되며, 서사적 공간에서 주인공이 인간의 삶을 영위하다 나중에는 신으로 좌정되는 이야기로 주인공의 지위 변화과정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모든 본풀이는 통과의례의 요소를 텍스트의 내적·

---

1) 장덕순, 『한국문학사』 (동화문화사, 1987), p.40.

외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므로 논의의 대상으로 매우 적절하다. 특히 <이공본풀이>는 내륙지방의 서사무가나 소설, 설화 등과 내용상 매우 유사하여 어떤 텍스트를 원형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공본풀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서사구조 및 이본의 특성을 파악하고, 화소에 드러난 通過儀禮의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텍스트의 敍事構造가 通過儀禮의 과정과 유사함을 밝히고, 텍스트의 통과 의례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문학의 원형이라는 신화로서의 보편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이공본풀이>는 내륙지방에서 전승되는 서사무가와 불교설화<sup>2)</sup>, 고소설인 <안락국전>, 『월인석보』에 수록되어 있는 <안락국태자경><sup>3)</sup>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과 내용상의 유사점을 보이고 있어 그간 학계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는 내륙지방의 무가나 불교설화, 고소설 간의 비교 내지는 상호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집중<sup>4)</sup>되어, 신화 자체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 신화 자체의 의미를 작품 내적·외적 측면에서 논의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 역시도 신화 자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 2) 서사무가로는 평북 지방에서 전승되는 <신선세턴님청배> 경남 지방의 <약양국왕자노래>와 <방심굿> 등이 있으며, 불교설화로는 경북 경주 근처의 사찰인 '지림사'의 연기설화가 이에 속한다.
- 3) <안락국태자경>은 『월인석보 권8 詳節部』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초기에 이 서사무의 명칭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재동 교수에 의해서 <안락국태자전>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는데, 그러한 이유는 『월인석보』가 『釋迦譜』의 국역이므로, <안락국태자경>이 『석가보』에 편입되었다가 <안락국태자전>으로 전개된 것이며, <안락국태자경>은 그 자체로 소설수준의 서사문학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여타의 위경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안락국태자전 연구』, 『충남대 어문연구』, 제5집, 1967) 하지만 이에 대해 서대석 교수는, 이 서사무가 宗經이거나 僞經이거나 간에 결국에는 佛經의 번역임에 틀림없으므로, '經'자를 붙이고자 한다고 하여 <안락국태자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서사무가 연구』, 『국문학 연구』, 제8호, 1968.)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 명칭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므로, 본 연구 역시도 이 같은 논의를 중시하여 <안락국태자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 4)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대석, 「서사무가 연구」(『국문학연구』, 제8호, 1968).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일조각, 1971).  
 장주근, 「서사무가의 시원과 민속문예사상의 위치」(『문화인류학』, 제5집, 1973).  
 사재동, 『불교계 국문소설의 형성과정 연구』(아세아문화사, 1977).

<이공본풀이>에 관한 작품론은 대상을 서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가, 또는 의례적 측면에서 바라보는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서사적 측면에서 <이공본풀이>의 의미를 고찰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강정식과 조동일이 있다.

강정식<sup>5)</sup>은 <이공본풀이>를 구비서사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능, 구조, 내용, 형성과정의 네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그는 <이공본풀이>가 음악보다 사실에 치중하기 때문에 단조로운 구송창으로 불리며, <이공본풀이>는 굿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呪術的 기능보다 文學的 흥미를 맛보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굿이 지니는 오락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작품의 구조는 전체적으로는 점차 고난이 심화되다가 절정에 이르는 점진적인 구조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빈부의 갈등과 수난의 주제가 되는 여성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공본풀이>가 하층민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논의를 펼쳤다. 마지막으로 <이공본풀이>계 서사물의 내용을 비교하고, 그 전승과정이 ‘<안락국태자경> - <악양국왕자노래> - <안락국전> - <이공본풀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논의를 마치고 있다.

조동일 교수의 연구 역시도 <이공본풀이>를 구비서사시적 관점에서 논의한 것으로, 앞선 강정식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그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 미천한 인물이 갖가지 고난을 견뎌내고 부모와의 천륜을 이었다는 점’에서 <이공본풀이>를 ‘효행서사시’<sup>6)</sup>로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은 <이공본풀이>의 서사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모두 <이공본풀이>를 신화가 아닌 구비서사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강정식은 <이공본풀이>가 무가이기 때문에 주술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언급하였지만, 사실내용이 무가의 기능과 합치되는지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이공본풀이>의 기능을 문학적 흥미를 이끌어낸다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본풀이의 신이 일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범인의 이야기가 반영된다고 보았다. 조동일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들 연구자들은 모두 <이공본풀이>를 ‘신’의 이야기가 아닌 일반인들의 이야기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공본풀이>라는 신화의 명칭을 보면 이것은 곧 ‘이공’이라는 신의 근본을 풀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공본풀이>는 ‘이공’이라는 신에 대한 제의에서 신의 강림을 기원하기 위해 창조된 신화로 추정할 수 있다.<sup>7)</sup> 또한 ‘본풀이’의 주인공들이 모두 신으로 좌정된다는 점을 통해서도 凡人들의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따라서 <이공본풀이>를 단순히 문학적 흥미

5)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1987).

6)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양상과 변천』(문학과 지성사, 1997), pp.101~102.

7) 이수자,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학사적 위상 - 이공본풀이계 서사물의 변용과 의미(1)」, 『제주도 연구』, 제10집, 1993), p.20.

라는 기능만을 드러내는 구비서사시로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그것이 구송되는 의례적 장소를 고려하면 오히려 신화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중세시대의 관념이 결합되면서 신성성이 약화되고 일상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의례적 측면에서 신화적 의미를 모색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이수자와 정진희가 있다.

이수자의 연구<sup>8)</sup>는 <이공본풀이>의 제의적 성격을 토대로 하여 신화적 의미를 고찰한 사례이다. 그는 텍스트에 드러나는 ‘수레멜망악심꽃’과 ‘도환생꽃’의 제의적 기능과 의미를 바탕으로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공본풀이>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기원적 사실을 설명하는 신화이자, 죽음을 전제로 하여 환생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며, 인간 생명을 식물체계로부터 유추하여 생각했던 사고를 기저로 인간의 죽음에 대한 기원적인 사실을 꽃과 더불어 설명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이유로 그는 <이공본풀이>의 등장인물인 ‘장자’의 죽음을 언급한다. 즉 장자는 악심을 품은 인물이었으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인간 역시도 악심을 품은 존재임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진희<sup>9)</sup>는 앞서 살펴본 이수자의 논의와 유사한 입장으로, 의례를 통해 전승되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는 <이공본풀이>의 서사와 이공신에 대한 제의가 공통적인 신화적 관념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신화적 인식의 장을 형성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그는 특히 ‘수레멜망악심꽃’의 의미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할락궁이의 징벌’에 주목하였으며, 의례적 측면에서 ‘수레멜망악심꽃’이 인간의 불행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부정적 힘은 ‘할락궁이’로 하여금 현실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하는 신으로서의 면모를, 이를 물려준 ‘사라도령’은 숨은 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함으로써, <이공본풀이>가 결국은 할락궁이 중심의 질서 체계의 권위를 강조하는 신화라고 주장한다. 즉 ‘수레멜망악심꽃’을 제어할 수 있는 신의 능력과 그러한 능력을 근거로 하는 신 중심의 질서, 신의 질서 체계 내에 포섭되지 않은 자(장자)에 대한 징벌, 질서의 주변에 있는 자(원강암이)가 그 내부로 포섭되어 존재할 수 있는 원리를 <이공본풀이>가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공본풀이>는 사회문화적 질서가 유지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신화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위와 같은 결론이 ‘서사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형성되어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 있다. 선행 연구자가 규명한 <이공본풀이>의 원리는 의미상 본 연구에서 다룬 통과의례의 사회적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한 이유는 통과의례의 사회적 기능이 사회적 또는 종

8)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pp.117~126.

9) 정진희, 「제주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국문학연구』, 제7호, 2002), pp.181~197.

교적인 지위의 변화를 획득하거나 부여받는 당사자와 그가 속한 집단의 혼란과 변화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사적 측면에서도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선행 연구자가 남긴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특히 이는 <이공본풀이>의 서사전개를 연구함에 있어 기존의 논의, 즉 유사한 서사전개를 보이는 다른 장르의 서사물과의 비교 내지는 상호 관계를 규명하는 논의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 3. 연구 범위 및 방법

<이공본풀이>는 좁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지만, 내용이나 명칭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자료집에 채록된 이본의 수는 12편<sup>10)</sup>으로, 구연자가 없는 『風俗巫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본들은 각각 구연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최초로 제주도의 서사무가를 채록한 『朝鮮巫歌の研究』를 제외한 나머지 이본들은 국내의 학자들이 채록한 이본들이다. <이공본풀이>의 이본들은 서사의 전개상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이 드러나지만, 내용적인 측면과 명칭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이본 중에서 어떠한 자료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본에 관한 기존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강정식<sup>11)</sup>과 현용준<sup>12)</sup>, 이수자<sup>13)</sup>가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현용준 교수는 <이공본풀이>의 여러 이본을 제시하고, 이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서사전개를 정리<sup>14)</sup>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이본은 각각 박봉춘 본, 조홀대 본, 고산옹 본, 고대중 본, 이승순 본, 한생소 본, 『풍속무음』 본, 안사인 본이다. 이본을 비교하여 공통의 서사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각 이본의 차이점을 밝혔던 강정식의 연구와는 달리, 이본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차이점을 규

10) 『風俗巫音』, <이공본풀이 - 박봉춘 본>, <이공본 - 조홀대 본>, <이공본 - 고산옹 본>, <이공본풀이 - 고대중 본>, <이공본풀이 - 안사인 본>, <이공본풀이 - 현금순 본>, <이공본풀이 - 한생소 본>, <이공본풀이 - 이승순 본>, <이공본풀이 - 이용옥 본>, <이공본풀이 - 양창보 본>, <이공본풀이 - 고순안 본>

11) 강정식, 앞의 논문, pp.12~16.

12)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집문당, 2005), pp.59~62.

13) 이수자는 등장인물의 명칭에 관하여 연구한 사례로, 원강도령이란 원강아미의 '원강'에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공본풀이>와 내용상의 유사성을 보이는 함경도 지방의 무가 <세턴님 청배>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사라'라는 음과 유사하므로 '사라도령'이 원래의 이름이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수자, 앞의 논문, pp.33~35.) 본 연구 역시 등장인물의 명칭에 있어 위의 연구 결과를 따르고자 한다.

14) 현용준, 앞의 책.

명하려는 노력이기보다는, <이공본풀이>라는 하나의 서사적 줄기를 도출하고자 노력한 사례이다. 서사의 단락을 비교적 세세하게 다룸으로써 앞서 강정식이 제시한 공통서사의 내용보다 구체적이며, 방대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채록시기가 비교적 오래된 이본들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도 이본들이 채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삼은 이본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참고할 이본은 다음과 같다.

[표 1-1] <이공본풀이>의 이본

|    | 명칭    | 구연자 | 출전                                 |
|----|-------|-----|------------------------------------|
| 1  | 이공본푸리 | 박봉춘 |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歌の研究 上』(1990)        |
| 2  | 이공본   | 조흥대 |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2002)         |
| 3  | 이공본   | 고산웅 |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2002)         |
| 4  | 이공본풀이 | 안사인 | 현용준·현승환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제29권(1996) |
| 5  | 이공본풀이 | 한생소 | 문무병 외, 『제주도 큰 굿 자료』(1994)          |
| 6  | 이공본풀이 | 고대중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2001)          |
| 7  | 이공본풀이 | 이승순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1998)    |
| 8  | 이공본풀이 | 이용욱 | 허남춘 외, 『이용욱 심방 <본풀이>』(2009)        |
| 9  | 이공본풀이 | 양창보 | 허남춘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2010)        |
| 10 | 이공본풀이 | 고순안 | 허남춘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2013)        |

위의 자료들은 [1] ~ [7]은 널리 알려진 자료이고, [8] ~ [10]은 최근에 채록된 자료로서 모두 구연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내용상 현용준 교수가 제시한 서사전개의 내용을 추출할 수 있는 이본들이므로, 연구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것이다. 이본들 중에서 『풍속무음』 본<sup>15)</sup>은 제외하였는데, 구체적인 구연자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연현장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이상의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결과에 도달하고자 한다.

첫째, <이공본풀이>는 좁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본이 존재하며, 최근에

15) 『風俗巫音』에 대해서 강정식은 자세한 기록배경은 알 수 없으나, 무당의 학습서로 쓰인 것을 모았을 것으로 추측하였다.(강정식, 앞의 논문, p.12.)

이르러서도 채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승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의 통과의례적 의미를 연구함에 있어 먼저 텍스트의 서사적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참고할 이본 10편을 대비하여 서사적 특성을 살펴보고, 텍스트의 서사를 소설의 기본 구성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각 단계에 해당하는 핵심 사건들이 재구성되어 어떠한 구조로 나타나는지 알아볼 것이다.

둘째, 통과의례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변화과정을 구조화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인 <이공본풀이>에서 통과의례의 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의 변화양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텍스트의 서사구조가 파악되면, 인물의 상태나 지위의 변화를 수반하는 사건, 즉 통과의례의 과정이 드러나는 화소를 추출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물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변화하였는지 반 켄넵이 제시한 통과의례의 이론을 통해 해석할 것이며, 아울러 이때 등장하는 공간, 즉 배경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셋째, 텍스트에 드러난 통과의례의 요소를 통해 주인공의 변화과정을 살피고, 이를 텍스트의 서사구조와 비교함으로써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가 통과의례의 과정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통과의례의 이론에 의해 해석된 인물의 변화과정, 특히 주인공의 존재론적인 변화과정을 <이공본풀이>의 서사전개 과정과 비교함으로써, 구성단계의 흐름에 따른 서사의 변화, 인물의 변화, 공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이공본풀이>에는 어떠한 통과의례적 의미가 나타나는지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II. 이공본풀이의 敍事構造

<이공본풀이>는 제주도 큰굿 열두거리에서 구송되는 무속신화이다. 큰굿 열두거리의 구성 및 진행 순서를 보면, [①초공제 ②불도제 ③초공제 ④이공제 ⑤삼공제 ⑥시왕제 ⑦명감제 ⑧세경제 ⑨철성제 ⑩성주제 ⑪본향제 ⑫일월조상제]이다. 이 중 <이공본풀이>는 ‘초공맞이제(초공제)’ 다음 제차에서 구송되어, ‘이공맞이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이공본풀이>는 ‘불도제’에서도 구송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수자는 <이공본풀이>이나 <생불할망본풀이>에 ‘꽃화소’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도맞이(불도제)에서 수용되어 구송되고 있는 것<sup>16)</sup>으로 보았다. ‘꽃화소’는 <이공본풀이>의 서사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구체적으로는 ‘도환생꽃’이나 ‘수레멜망약심꽃’, ‘웃음웃을꽃’, ‘싸움싸울꽃’ 등이며, 이들 꽃은 모두 ‘서천꽃밭’에 존재하는 꽃들이다. 이 신화는 부엉새가 서천꽃밭을 망치게 되자 생불신이 꽃감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결과, 사라도령이라는 남신이 ‘꽃감관’으로 내정되는 내용으로 시작하며, 서천꽃밭에 도착한 할락궁이가 꽃감관의 자리를 물려받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서천꽃밭’ 역시 ‘꽃화소’와 더불어 <이공본풀이>의 서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서천꽃밭은 ‘주화(呪化)’를 가꾸는 신성한 장소로, 이 꽃밭을 꽃감관이 관장한다. <이공본풀이>는 제주도 무당굿의 하나인 주화관장신의 신화인 동시에 그 신화를 노래하고, 신이 강림하기를 기원하는 제차로서, 명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공’이라는 신의 근본을 풀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주화관장신은 곧 ‘이공신’이며, 신화에서는 ‘꽃감관’으로 간주된다. 이공신에 대해서 장주근은 ‘이공신은 근원적인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관장하는 직분을 가진 신이며, <이공본풀이>에서 드러나는 서천꽃밭과 그 곳에 피어나는 꽃들은 이 신화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기타 여러 본풀이와 제차들에서 관련되어 큰굿 전체의 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sup>17)</sup>고 하였다. 이처럼 <이공본풀이>에서 ‘꽃’과 관련된 소재들은 서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장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의 서사를 순차적 구조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이공본풀이>의 서사적 특성과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16)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pp.117~127.

17) 장주근, 『풀어 쓴 한국의 신화』(집문당, 1998), p.110.

## 1. 서사 단락의 比較

<이공본풀이>는 소설의 기본 구성단계인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각 단계 별로 핵심적인 사건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다른 이본들과 대비함으로써 <이공본풀이>의 서사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 1) 발단

발단은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기 전에 인물이나 배경 등이 소개되는 부분이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

- A. 가난한 짐진국과 거부인 임진국은 자식이 없어 서로 근심함.
- B. 불공을 드리면 자식을 얻을 것이라 하여 짐진국과 임진국은 함께 불공을 드리기로 함.
- C. 가난한 짐진국은 정성을 다해 시주를 차리지만, 임진국은 적당히 차려서 시주를 차림.
- D. 시주가 백근이 찬 짐진국은 사라도령을, 시주가 아흔아홉 근이 찬 임진국은 원강암이를 얻음.
- E. 사라도령과 원강암이의 혼인

발단 부분에서 보이는 이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간적 배경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에, 시간적 배경은 모호하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점, 모든 이본에서 사라도령과 원강암이를 언급하기에 앞서 그들이 태어나게 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짐진국과 임진국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이 되겠다. 특히 짐진국과 임진국이 자식을 얻기 위해 불공을 드린다는 점은 조선 후기 소설에서 관용적으로 차용된 서두 부분과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발단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비교적 최근에 채록된 이용옥, 양창보, 고순안 본의 경우는 본풀이가 시작되기에 앞서 ‘들어가는 말미’나 ‘공선가선’, ‘연유담’ 등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데, 특히 세 이본에서 모두 ‘이공은 꽃빨리’라는 구절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位)가 돌아갑네다. 제(座)가 돌아갑네다. (중략) 초공은 신빨리웨다. 이공은 꽃빨리, 아납네까. 이공

본이라허믄, 우리 인간 살다근, 열다섯 십 오세 안네에, 죽으면 서천꽃밭디 들어간덴 허곡, 또 훈 가지, 이공본이라 허민 저승 서천꽃밭디 강 꽃 번성을 시경, 인간에 살아 있는 즈순덜, 번성시켜, 쯤센 해연 이공본이 나온 법입네다.

<이공본풀이 - 이용옥 本>

이공본데레 들어갑니다.

공선은 공선은 가신 공서 / 제저 남산 인부역 서가여레 서준낭 서준공선 / 말씀을 여쭙네다.

초공 임정국 상시당 하늘님, 초공은 신빨리, 이공은 꽃빨리, 이공서천도산국 (중략)

<이공본풀이 - 양창보 本>

초공 난수생 / 신을 풀어 일부 한잔 시켜수다.

이간 똥긴 / 이공 서천도산국, 초공은 신빨리며 이공은 꽃빨리 아님네까. (중략)

<이공본풀이 - 고순안 本>

‘꽃빨리’는 꽃의 뿌리라는 의미이다. 즉 ‘이공은 꽃빨리’라는 것은 ‘이공은 꽃의 뿌리이다’를 말한다. 그래서 <이공본풀이>는 꽃의 뿌리, 즉 ‘환생꽃’, ‘수레멜망악심꽃’ 등 온갖 꽃들의 근원을 설명하는 꽃의 뿌리가 된다. 이공이 꽃의 뿌리라는 내용은 세 이본 외에 한생소 본과 이승순 본에서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다른 이본에서는 채록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채록자에 의해 누락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는 각기 아들과 딸을 얻게 된 과정이다. 대부분의 이본은 짐진국이 백 근을 채워 아들을 얻고, 한 근이 모자란 임진국이 딸을 얻는다는 내용이 있는 반면, 몇몇 이본에서는 상대방보다 많은 양의 시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얻는다는 반전의 내용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된 이본으로는 이용옥, 양창보, 고순안 본이 있다.

대서님 굳는 말이, “원진국 대감님이 당신은 출령 온 건, 하영하영 출령 오랏수다마는, 훈 근이 부족허연 정성이 지극치를 못 허연, 백 근 장대가 아니 차고 짐진국은, 출린 건 하영 아니 출린 오라도 정성이 지극허난, 짐진국은 아덜을 지급시켜 줄 듯허고 원진국은, 여궁녀가 지급될 듯 허옵네다에.

<이공본풀이 - 이용옥 本>

마음 다 네 정성을 디령 / 몸 정성 입 정성 잘 디리고 김진국 대감님이 정성을 디리니,

하도 정성이 기특을 허곡, 바리바리 상백미 중백미 하백미 송낙베 가삿베 구만 장, 득끈을 체앙 출령  
간 역가 받은 사람은, 제물을 올려도 정성이 불충분하여 간다.

부처님이 매어 굶어 슬퍼 / 뭍으씨 착한 김진국은 아덜 생불을 주고 원진국은 똥을 낳게 허엿구나.

<이공본풀이 - 양창보 本>

“짐진국 데감님은 이거, 백 근을 준준이 체울영 오라도, 예궁녀가 탄생혈 듯 허옵네다. 원진국 데감님  
은 그날 출령 가도, 아덜 조식 / 정성이 그뚝허난 아덜 조식 생불을 줄 듯 허옵네덴.”

<이공본풀이 - 고순안 本>

위의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재물의 양 보다는 정성의 지극함이 아들과 딸의 탄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허남춘 교수는 “부자로 살아 재물을 많이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도 마음으로 지극하게 하는 것이 정성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보았다.<sup>18)</sup> 한편 고순안 본은 다른 이본들과 달리 원진국(임진국)이 사라도령을 얻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전개

전개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으로, 사라도령과 원강암이가 서천꽃밭으로 떠나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길을 떠난 후 원강암이가 발병이 나서 장자의 집에 종으로 팔린다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

- F. 사라도령에게 서천꽃밭에 벼슬을 살려 오라고 차사가 등장
- G. 사라도령은 임신한 원강암이와 같이 서천꽃밭을 향해 길을 떠남
- H. 원강암이의 발병
- I. 제인장재의 집으로 감
- J. 부인과 뱃속의 아이가 종으로 팔림
- K.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증표를 남김

사라도령에게 옥황의 명이 내려진 것은 모든 이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지만, 차사가 옥황의 명

18) 허남춘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p.20.

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라도령과 원강암이 앞에 등장하는 [F]는 박봉춘 본, 조흠대 본, 고산옹 본, 이승순 본, 양창보 본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박봉춘 본의 경우는 차사가 내려왔다는 언급은 없으나, 서천꽃밭으로 향할 때 옥황사자가 동행하는 것으로 보아 옥황의 편지를 옥황사자가 직접 가지고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이승순 본이나 조흠대 본, 고산옹 본, 양창보 본은 차사가 직접 내려와 사라도령을 찾는 장면, 원강암이가 차사를 따돌리는 장면 등도 언급되어 박봉춘 본보다 구체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흐를날은 원강부인님 얘기는 쳇동굴이베고, 물질레 감시난, 하늘옥황 도세곤간 황세곤간 느려사 간다. / 원강부인님 앞의 사라대왕 어디 살았수겐 허난, 어떻게영 좇았수가.

옥황(玉皇) 명령 받은 황세곤간 도세곤간인데, 서천꽃밭 꽃감관 꽃쟁인 멧기젠허연 느려오랐수다 일러간다. / 원강부인님은 이 제 넘고 저 제 넘영 강 뵈셴 일러두고, 집으로 들어오란 설우시던 낭군님아, 서천꽃밭 꽃감관 꽃쟁인 멧기젠 옥황의서 황세곤간 보내여십디다. 말을 허누렌 허난 어느 동안 시군문 안터레 들어사간다.

<이공본풀이 - 이승순 本>

서천꽃밭 꽃감관질로 오랜 허연 가게 되는데, 그 얘기가 들이 찬 걱정이 태산같으니,  
흐를날은 임정국 똥님얘기가 물질레 나가단 보난 서천꽃밭디서 삼체스가 느리고,  
“말 훗술 물으쿠다.” / “미신 말이우파?”  
“이 고을에 사라도령이 어디 살았수까?”  
“저 쪽 질로 돌아가명 보민 좇아집네다.”  
임정국 똥님애긴 지 서방을 심으레 오는 삼체술 멀찌거니 보내여 두언.

<이공본 - 조흠대 本>

서천꽃밭디선, “짐정국 아들 사라국 사라도령이 서천꽃밭딜로 오랑 꽃을 직허라.” 연통이 오랏구나.  
연통이 초번 오라, 이번 오라, 제삼번을 오라도 가질 안허연 앗안 신디,  
흐를날은 사라국 원강암이가 허벽지연 물질레 삼유전 거리에 나가난 서천꽃밭디서 삼체스가 느린 오  
는디, 원강암이?라 스령 체스가 말허되, / “말 물으쿠다.” / “예, 미신 말이우파?”  
“이 고을에 사라국 사라도령이 어느만쯤 삶네까?”  
“애이구, 그 딴 가쟁허민 머우다. 그 딴 가쟁허민 저영 가사 흡네다.”  
원강암인 삼체술 멀찍어니 보내여 두언, 물도 안질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란.

<이공본 - 고산옹 本>

난디 없이 저싱사자가 넘어감시, “어떻헌 일이우꽈?” “이 동네에 사레국 사레도령이 있음네까?”  
 “예, 있음네다.” “집을 압니까?” 아이구 아이구, 요거 집이라도 먼 달로 ㄱ르천  
 “영 돌아오랑 이레 읍서.” 영허난 “경 험서.” 먼달로 보내어 두고, 원강암이는 쫄레허던 것을 주어담  
 안 설러전 집 안으로 와랑시랑 간

<이공본 - 양창보 本>

위의 이본들은 차사<sup>19)</sup>가 사라도령을 찾는 점이나 원강암이가 차사를 따돌리는 등의 장면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만 조흠대 본이나 고산옹 본은 이승순 본에 비해서 이 장면이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서사의 전개양상도 매우 유사한데, 그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사라도령이 옥황의 명을 어기자 차사가 서천꽃밭에서 내려오고, 원강암이를 만남
- ② 원강암이가 차사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집으로 가 가족에게 차사가 왔음을 고함
- ③ 사라도령 집안은 차사에게 한 끼의 식사마저도 대접할 형편이 못되어 고민함
- ④ 사라도령은 서천꽃밭으로 가겠다고 하고, 원강암이는 반드시 따라가겠다고 함
- ⑤ 사라도령과 원강암이가 마을을 나서던 중에 차사를 만남
- ⑥ 차사가 다시 이들에게 사라도령의 집을 묻고, 사라도령은 자신을 소개함.
- ⑦ 차사는 식사대접을 받지 못했던 이유로 괘씸하여 사라도령을 기절시킴
- ⑧ 원강암이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차사가 이를 받아들이고 셋이서 서천꽃밭으로 향함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하면, 사라도령은 옥황으로부터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되라는 명을 받았지만, 그 명을 어기고는 가족들과 같이 지내고 있었다. 즉 사라도령이 처음부터 서천꽃밭으로 가지 못한 이유는 조흠대 본에서 언급되었듯이, 원강암이가 임신을 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원강암이는 그런 사라도령의 마음을 알고 서천꽃밭에서 내려온 차사를 멀리 돌려보낸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차사가 사라도령을 데려가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 가족은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으로 가야하는 문제보다, 차사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해야만 하는 현실이 더 중한 문제였다. 이처럼 가난한 삶을 살던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으로 간다는 것은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기 보다는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발병이 나버린 원강암이를 제인장재의 집에 팔고 홀로 서천꽃밭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19) 명칭에 있어서, 이승순 본은 ‘하늘옥황 도세곤간 황세곤간’이라고 하여 차이를 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차사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창작의 주체였던 가난한 민중의 삶이 텍스트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강정식은 사라도령을 데리러 온 삼차사를 대접하는 부분에서 빈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작품에 반영된 것은 본풀이가 당시 제주도의 중심적인 문학 장르였으며, 특히 문학창작의 주체가 하층민이었기 때문으로 보았다.<sup>20)</sup>

‘전개’의 단계에서 [F]의 내용을 제외한 ‘[G] ~ [K]’의 내용은 모든 이본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만 [K]의 부분에서 증거물로 제시되는 소재가 ‘용열래기, 참실 한 죄, 용열래기’ 등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고대중 본의 경우는 ‘본매본장’이라고 제시하여 다른 이본들에 비해 포괄적이며, 한생소 본과 이승순 본의 경우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지닌다.

### 3) 위기

위기의 단계는 이야기의 구성 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원강암이의 시련이요, 다른 하나는 할락궁이의 시련이다. 먼저 원강암이의 시련은 제인장재로부터의 동침요구와 이를 거절하여 발생한 노역과 죽음이며, 할락궁이의 시련은 가출과정과 서천꽃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위기의 단계와 관련된 핵심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L. 제인장재의 동침 요구와 원강암이의 거절
- M. 제인장재에 의한 노역
- N. 할락궁이의 가출
- O. 원강암이의 죽음
- P. 할락궁이의 서천꽃밭 진입

위기 부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L]에서 [O]로 이어지는 과정이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진행되고 있다. 즉 동침 요구에 대한 거절로 인하여 주인공들의 노역이 발생하며, 노역으로 인해 할락궁이는 아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는 가출로 이어진다. 또한 할락궁이의 가출은 원강암이의 죽음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단계는 인과의 과정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L]에서 [M]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본들 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

20)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1987), pp.25~29.

전 약속대로 베필을 못자하니 이 무지한 장자님아, 주노는 부자와 가튼데 어찌 베필을 무으리요하니, 장자분 히역여, 너는 죽이겠다 하고 도라와서 자객을 멩하야, 죽이고저 하니 끝엿말 하는 말이, 그 종 죽이면 도리여 해로우니 고역을 만이 식이는데 조심너다 하고,

<이공본푸리 - 박봉춘 本>

앞발디 장검 걸라, 뒷발디 버텨 걸라 쥬강놈을 불르라. 숙적기도 내어걸라 히여가난, 말쭈똥애기가,

“아바님은 이거 미신 일이우꽈?”

“야, 그런게 아니라, 이 년이 행실이 나빠서 죽여불키여.” / “미신 일이우꽈?”

“오라 행에 사름을 씨검따.”

“아바님아, 사름을 죽임광 살림이 맞습네까? 이년 종이라도 죽이민 살인으로 역작으로 쥬각으로 다 시립네다.” / “경히민 어떻히느니?” / “버력을 시깁서.”

<이공본 - 조홀대 本>

원강댁일 죽이기로 막 다시려가난 천년장제 말쭈똥애기가,

“아바님아, 이거 어떤 일이우꽈?” / “야! 그런 것이 아니며, 그 번 저 번 사름을 냉기기로만 한다.”

“아이구 아바님아, 이년 종이라도 죽이민 역적이 아니우꽈. 사름이 죽음광 삶이 맞습네까? 그영 말 앙 그것드 버력이나 시깁서.”

<이공본 - 고산옹 本>

제인장제가 집에 돌아간다. 집이 돌아가고 큰똥애길 불러가고, “저종이 갖는 말을 안들으니 직여야 좋으나 살려서 좋으나?”

큰똥애기 말을 하되, “아바님 어머님 말씀 거영하는 종 직여야 좋으리다.”

셋똥애길 불러내고, “저종 직여 좋으나? 살려 좋으나?” 물으시니, “아바님 어머님 말씀 거영하는 종 직여야 좋으리다.”

족은똥애길 불러내고, “저종 죽여야 좋으나 살리와 좋느냐?” 일르시니, 족은똥애기가 말을 히되, “아바님 어머님 말씀 거영하는 종 쥬경야 좋으외다마는 그종 직여불민 돈백량두 돈입네다. 은백량도 돈입네다. 벌역이나 시켜보기 어떻히니까?”

<이공본풀이 - 고대중 本><sup>21)</sup>

21) 내용이 유사한 이본으로 <이공본풀이 - 이용욱 本>이 있다.

위의 이본들은 화가 난 제인장재(또는 장자)가 원강암이를 죽이려하는 점, 막내딸이 화가 난 제인장재를 말리고 노역을 시키도록 권유하는 점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다른 이본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이다. 그 밖의 이본들은 제인장재가 화를 내고 원강암이에게 노역을 시킨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다. 반면에 안사인 본은 수록 자료집마다 내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고전문학전집 29권』에서는 위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으며, 『제주도 신화』<sup>22)</sup>에서는 제인장재가 분풀이의 대가로 원강암이와 할락궁이에게 노역을 시킨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이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제인장재가 화를 내는 것, 원강암이와 할락궁이가 노역을 한다는 것이 된다.

원강암이는 할락궁이와 함께 제인장재 집이라는 공간에서 시련을 겪게 된다. 두 인물이 모두 시련을 겪고 있지만, 이 시련의 주체는 원강암이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러한 이유는 원강암이가 제인장재의 요구를 거절한 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노역의 내용은 이본들 별로 그 내용에서 있어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자세하게 서술된 이본의 경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역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인간으로서 수행하기 어렵고 힘들어지면서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할락궁이 역시 노역을 하지만, 위의 사건은 오히려 할락궁이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M]에서 [N]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본들 별로 살펴보면, 박봉춘 본을 제외한 모든 이본에서 공통적으로 ‘콩’이라는 소재가 등장한다. 할락궁이는 ‘콩’을 이용하여 원강암이로 하여금 순순히 말하도록 상황을 만든다. 그런데 그 과정이 사뭇 잔인하다. 즉 모자의 관계로 보기 힘들 정도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할락궁이는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서 바른 말을 할 때까지 어머니인 원강암이의 손을 뜨거운 솥뚜껑에 위에 대고 누른다. 할락궁이의 이러한 강력한 행위는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는 행위로서, 전승과정에서 이러한 야생적인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남아 현재까지 이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N]은 할락궁이의 시련에 해당된다. 제인장재는 할락궁이가 사라진 것을 알고 ‘개<sup>23)</sup>’를 시켜 할락궁이를 잡아오도록 하는데, 이 때 할락궁이는 원강암이에게서 미리 받은 범벅을 던져, 개들을 따돌린다. 이러한 과정은 모든 이본에서 드러나고 있다.

[O]의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는 이본으로는 조흥대 본과 고산옹 본이 있다. 이들을 제외한

22) 현용준, 『제주도신화』(서문당, 1996), pp.63~73.

23) <이공본풀이>에서 제인장재는 할락궁이를 잡기 위해 ‘개’를 두 번 보낸다. 이는 각각 ‘천리둥이(천리통)’, ‘만리둥이(만리통)’로 제시되고 있는데, 각 이름의 앞에 있는 ‘천리’와 ‘만리’는 거리를 의미한다. 즉 개들이 할락궁이를 따라잡을 수 있는 한계거리를 말한다.

다른 이본에서는 활락궁이가 사라도령과 상봉하는 장면에서 사라도령이 원강암이의 죽음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앞밭디 강 장검 걸라. 뒷밭디 강 버텅걸라. 쥬강놈도 불르라. 속청기도 께조우라. 원강댁일 죽일팔로 돌루멍, 성틀에 올려종완 초댁임 아드득기 틀멍, “느 바른 말을 해라.”

“예, 바른 말을 ㄱ라도 그 말이우다.”

이댁임을 받아도, 삼댁임을 받아도, 그 말이우덴 허난, 이젠 애개길 환도레 잇단 확기 끈찬, 몸뚱이 멍, 대강이멍 문딱 청대왓데레 잇단 드리쳐부난,

<이공본 - 조흥대 本>

“앞밭디 강 장검 걸라. 뒷밭디 버텅 걸라. 속적기도 께조오라. 쥬 강놈을 불르라.” 죽이기로 다시리여, 원강댁일 성틀에 매연, 초드렐 틀언, “바른 말을 허라.”

“ㄱ라도 그말이우다.” 이드렐 틀언, “바른 말을 허여라.”

“ㄱ라도 그말이우다.” 삼드렐 틀언, “바른 말을 허여라.”

“ㄱ라도 그말이우다.” 그젠 환도로 애개길 확 틀언 그찬, 청대왓드레 드리쳐불고,

<이공본 - 고산옹 本>

두 이본은 다른 이본에 비해 원강암이의 죽음과정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 역시도 매우 유사하다. 원강암이의 죽음과정은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잔인한 모습을 보인다. 즉 형틀로 고문을 당하는가 하면, ‘斬首’를 당해 청대밭에 버려진다. 이러한 점에서 두 이본은 다른 이본들에 비해서 원강암이의 죽음과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다른 이본들에 비해 사건 전개에 있어 비교적 개연성이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P]는 활락궁이가 서천꽃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련이 나타난다. 개들을 따돌린 이후에 서천꽃밭 근처에 온 활락궁이는 여러 번에 걸쳐 물을 건너가게 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모든 이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박봉춘 본은 다른 이본에 비해 그 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때 현집 고치는데 잇스니 거괴들고 뭇기를, 서천꽃밭을 어디로 가느냐 무르니,

여기서 우리와 갖치 연삼년 일을 하면 알려주마 하니,

연삼년 잇스 후에 다시 무르니, 가당보면 발뚱 뜯 물이 잇고 적음턱이 뜯 물이 잇으니 넘어가라 하니, 가다가 이물을 넘어가니, 가마귀 일곱머리 울엄거늘,

너이들 어찌하야 우느냐, 칠선왕 가마귀니다.  
 너의들 무엇을 먹고 사는가. 버레를 먹고 삼니다하니,  
 버레를 잡아내여 주고 서천꽃밭 가는 길을 무르니,  
 신녀 세 사람이 울고 있을 터이니, 무러보라 하거늘,  
 과연 기나가고 보니, 삼신녀가 울고 있으니, 어떤 신녀길네 우느냐 무르니,  
 우리는 옥황신녀온대, 죄를 주고 벌려진 동이에 물을 잉어오라 하니, 못 잉어가고 울고있음니  
 다 하니, 활락궁이가 마의 정당 췌 정당을 거더다가 엮어메고, 송진으로 막아서 물을 질어주고  
 서천꽃밭을 무르니 가치가다가 이것이 서천꽃밭입니다 하고 가버리니.

<이공본푸리 - 박봉춘 本>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물을 건너는 과정에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다. 활락궁이가 서천꽃밭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부탁을 해결해야만 한다. 이는 다른 이본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이다. 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헌집 수리를 같이 해야 알려준다고 하여, 삼년 동안 일을 한다.
- ② 그 이후 물을 두 번 건넌다.
- ③ 칠선왕 까마귀를 만나서 그들의 먹이인 벌레를 잡아 바친다.
- ④ 깨진 동이에 물을 채우지 못해 울고 있는 삼신녀를 만나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다.
- ⑤ 삼신녀와 함께 서천꽃밭에 도착한다.

물을 건너는 과정에서 활락궁이가 행하는 일들은 부탁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이는 활락궁이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 헌집을 수리하는 일은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삼년을 수리공들의 곁에 머물면서 힘든 작업을 했을 것이다. 이는 활락궁이의 인내력을 시험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를 무사히 통과한 활락궁이는 이번에는 칠선왕이라 불리는 까마귀들의 먹이를 구해야 했다. 여기서 까마귀는 속세에 있는 날짐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장소에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그들의 먹이를 찾는 일이나 구하는 일은 인간간으로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는 활락궁이의 무력을 시험하고자 한 부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깨진 동이에 물을 채우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 옷을 잘라 엮어매고, 송진으로 막는다. 이는 단순한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므로, 활락궁이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게 시험을 거치는 과정에서 활락궁이는 시련이나 고통을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과정을 거치

고 나서야 비로소 서천꽃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할락궁이와 같은 시련을 겪는 인물을 다른 무가에서 찾을 수 있다. 바리데기는 약수를 구하기 위해 물을 건너 저승으로 가게 되는데, 약수를 얻기 위해 무장승이 요구한 노동을 행하고, 심지어 무장승의 자식까지 낳아주게 된다.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리데기는 비로소 약수를 얻게 되고, 다시 인간의 세상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할락궁이는 바리데기와 비슷한 시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박봉춘 본을 제외한 모든 이본에서는, 할락궁이가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사전개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 ① 할락궁이는 세 번에 걸쳐 물을 건너고 서천꽃밭에 도착한다.
- ② 옥황의 궁녀들이 서천꽃밭에 물을 주기 위해 물동이를 이고 등장한다.
- ③ 할락궁이는 궁녀들에게 말을 묻지만, 궁녀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 ④ 이에 할락궁이는 손가락에 피를 내고 연못에 흘려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 ⑤ 연못은 할락궁이의 피로 인해 부정(不淨)을 타게 된다.
- ⑥ 궁녀들이 부정이 탄 연못의 물을 길러서 서천꽃밭에 뿌리자, 꽃들이 시들어버린다.
- ⑦ 꽃이 시든 것을 확인한 궁녀들은 꽃감관인 사라도령에게 그간의 일을 고한다.

할락궁이가 건너는 물은 총 세 번에 걸쳐 드러난다. 이는 높이에 따라 다른데, 첫 번째는 발목(또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이며, 그 다음으로는 잔등이, 마지막으로는 목 위로 차오르는 물을 건너게 된다. 여기서 ‘물’은 인간의 세계와 서천꽃밭의 경계를 나누는 역할을 한다. 서천꽃밭은 현실의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공간이다. 서천꽃밭의 위치는 이본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몇몇 이본에서 ‘저승’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서천꽃밭이 죽음을 경험해야 갈 수 있는 공간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물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것을 종합해보면, 위기의 단계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위기의 전반부는 원강암이의 시련이, 위기의 후반부는 할락궁이의 시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이는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이 원강암이에서 할락궁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서사의 전개 모습을 보여준다.

#### 4) 절정

절정의 단계는 활락궁이가 사라도령과 만나고, 여러 주화를 얻은 후 제인장재 일족을 징치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은 활락궁이가 된다. 절정의 단계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

Q. 서천꽃밭에서 여러 주화를 획득

R. 제인장재 일족에 대한 징벌

[Q]는 활락궁이가 서천꽃밭에 머물면서 여러 주화를 획득하는 부분으로, 모든 이본들을 살펴보았을 때, 내용상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사라도령은 한락동일 꽃밭딜 ㄷ란 간, 꽃을 탕 주는구나.

팥오를 꽃, 솔오를 꽃, 오장육부 기릴 꽃, 불불을 꽃, 맬망꽃, 부제될 꽃  
하근 꽃들을 문 탕 주멍.

<이공본 - 조흘대 本>

서천꽃밭 꽃귀경을 시켜 주멍 꽃을 탕 주는구나.

요건 팥오를 꽃이여, 요건 솔오를 꽃이여, 요건 오장육부 간담 기릴 꽃이여,  
요건 웃임웃일 꽃이여, 요건 말ᄃ를 꽃이여, 요건 금유을 꽃이여, 요건 생불꽃이여,  
요건 불불을 꽃이여, 요건 맬망꽃이여, 요건 악십꽃이여.

<이공본 - 고산옹 本>

느네 어머니 원쉬를 가프커건, 수레맬망악십꽃을 내여 주커메 느네 어머니 원설 가프곡  
도환생꽃을 내여주건 느네어머니 살려오라. 이 꽃을 웃음 웃을 꽃이라. (중략)  
다 모아오건 웃음 웃을 꽃을 허끄민, 황천 웃음이 버러질 거메,  
그때랑 싸움 싸울 꽃을 노민 삼당 웨당이 싸움을 흘 거여.

<이공본풀이 - 안사인 本>

서천꽃밭 들어강 사름 살리는 꽃, 피오를 꽃, 솔오를 꽃, 싸움흘 꽃, 만년장제칩의 씨멜족 시  
길 꽃을 허여준다.

<이공본풀이 - 이승순 本>

위의 이본들은 꽃감관인 사라도령이 할락궁이에게 꽃을 직접 건네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박봉춘 본, 고대중 본, 한생소 본은 할락궁이가 스스로 먼저 복수와 어머니의 환생을 위해서 꽃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드러난다.

꽃사령의게 꽃을 일일이 가로쳐 달라하고,  
도환생꽃, 웃음웃는꽃, 싸움하는꽃, 악심하야 멸망하는 꽃 일일이 꺾거 노코  
금시상으로 나갓다가 다시 오리다 하고,

<이공본푸리 - 박봉춘 본 >

서천꽃밭의 들어가고 번승꽃과 환승꽃, 오장육부 생길 꽃, 말 굴을 꽃, 웃음웃을 꽃 꺾여들고  
멜망약심 수룩꽃을 꺾여들고,

<이공본풀이 - 고대중 본 >

이 꽃은 무슨 꽃이우파? 이거는 피 올를 꽃이여.  
이 꽃은 무슨 꽃이우파? 허난, 솔 올를 꽃이여.  
이 꽃은 무슨 꽃이펜 해난에 빼 올를 꽃이엔 허난에,  
아바지 몰라게 다섯가지 꽃을 오독톡하게 꺾겨가는구나. 꺾겨나가니,  
그때는 이거 무슨 꽃이우파? 수레멜망꽃이엔 허난 오독톡기 꺾겨나가난,

<이공본풀이 - 한생소 본>

서천꽃밭 들어간, “아바지 이건 무신 꽃이파?”, “이거는 싸움혈 꽃이여.”, “이건 무신 꽃이우파?”, “그건 막 이, 웃음 웃일 꽃이여.”, “요건 무신 꽃이우파?”, “그거는, 씨 멜족혈 꽃이여.”, “경허민 아바지 요건 무신 꽃이우파?”, “그건 용심나는 꽃이여” 굳는 양, 뒤에 딱라 덩기명 푹푹하게 문탁 꺾어가는구나에.

<이공본풀이 - 이용옥 본>

설운 아기가, 서천꽃밭더레 도올르라. 이거 피 올를 꽃이여. 이건 솔 올를 꽃이여. 말 굴을 꽃이여. 웃임 웃일 꽃이여. 간장네부 생길 꽃이여. 푹푹하게 꺾겨가는구나.

<이공본풀이 - 고순안 본>

사라도령이 건네주는 것과 달리 할락궁이가 꽃을 적극적으로 채집한다는 것은 할락궁이가 이미 꽃들의 쓰임새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공본풀이>에는 재생을 의미하는 환생꽃뿐만 아니라, 서천꽃밭에 피어나는 여러 종류의 주화가 제시된다. 주화의 이름은 곧 주화의 기능에 대한 것이다. 이 꽃을 통해서 할락궁이는 원강암이를 살리고, 제인장재의 일족을 모두 죽이는 일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양창보 본의 경우는 사라도령이 할락궁이에게 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 여타의 이본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처음에는 웃음꽃을 내여주라. 두 번째랑 싸움하는 꽃을 내여주라. 식 번째랑 수레악심멜망꽃을 내여주네. 그 집의 족은뜰은 느네 어멍 사랑사나난 하도 므음씨가 고난, 윽데레 등경 신청 7리 매 하나 딱 처경. 다른 사람이랑 므 수레악심멜망꽃을 주어그네, 어 심어당 므 죽여불라.” 영 헤 여두언, 번성꽃, 황신꽃, 어멍 살리는 꽃, 솔 오를 꽃, 빼 오를 꽃, 걸음걸이 황신혈 꽃, 오장육부 거릴 꽃, 말 굴아 행신혈 꽃,

영 헤영 노양근. “죽낭 막데기로 삼식 번 두드리면, 어멍 살아난다. 혼저 가라.”

<이공본풀이 - 양창보 본>

[R]의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할락궁이는 웃음웃을꽃, 싸움싸울꽃, 수레멜망악심꽃을 사용하는데, 이본들마다 주화의 명칭이나 사용한 방법, 사용한 후의 반응 등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할락궁이는 제인장재 일족을 한 장소에 모으게 한 뒤, 먼저 웃음웃을 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참지 못하게 한다. 이 웃음은 즐거움을 나타내는 웃음이 아니라, 매우 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웃음이다. 그 다음으로는 싸움싸울 꽃을 놓는데, 이걸 놓자 제인장재 일족은 화가 나서 서로 머리를 잡고 싸우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레멜망악심꽃을 놓자 숨어 있던 막내딸을 제외한 일족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다. 한편 조홀대 본과 고산옹 본의 경우는 다른 이본들과 달리 딸들을 징벌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다.

천년장젠 한락동이 갖는냥 문막 매와놓난, 그 앞서서 한락동인 웃음꽃을 내여놓난,

다들 해삭해삭 웃어가난 멜망꽃을 내여놓난 문막 멜망호연 죽여불었구나.

그영호연 한락동인 천년장제치 큰뜰애긴 가난홀꽃을 주고, 셋뜰애긴 멜망꽃을 주고,

청태국 마귀할망은 부제될 꽃 주고.

<이공본 - 조홀대 본>

이제 삼족일론이 문 매와 앓이난, 할락궁인 웃음웃일 꽃을 내여 놓난,  
삼족일론이 문 해삭해삭 배설이 그치지도록 웃어가난, 이젠 땀망꽃을 내여 놓난,  
문 땀떨어지듯 삼족일론이 문 죽어가는구나. (중략)  
큰똥애기영 셋똥애긴 나오라가난 불붙는 꽃을 내여놓난 매딱 불붙언 죽고,

<이공본 - 고산옹 本>

이를 살펴보면, 조흘대 본의 경우 첫째 딸에게는 가난할 꽃, 즉 가난하게 사는 꽃을, 둘째 딸에게는 땀망꽃을 주어 징벌하고, 자신을 도운 청태국 마귀할망에게는 부자될 꽃을 준다. 고산옹 본의 경우는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불 붙는 꽃을 놓아 화형을 통해 징벌한다.

## 5) 결말

결말은 할락궁이가 꽃을 사용하여 죽었던 어머니를 살리고, 어머니와 같이 서천꽃밭에 진입하면서 중심인물들이 모두 신으로 좌정함으로써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해당된다. 할락궁이가 신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제인장재의 징벌뿐만 아니라 원강암이의 환생도 깊은 연관이 있다. 결말 단계의 핵심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 원강암이의 환생

T. 신으로 좌정

[S]에 해당하는 장면은 대부분의 이본들이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 방법은 먼저 뼈를 맞추고, 살이 오르게 하며, 오장육부가 생기게 하고, 피가 돌게 하고, 숨을 쉬게 한 후에 회초리로 세 번을 때려 깨어나게 하는 것으로, 이 과정마다 쓰임새에 맞는 주화들이 등장하고 있다.

어머님 뼈를 도리도리 모아놓고 도환생꽃을 노난.

‘아이, 봄잠이라 오래도 잤저.’ 머리 글거, 어머님이 살아온다.

<이공본풀이 - 안사인 本>

안사인 본의 경우는 도환생꽃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본에서 원강암이가 환생하는 장면 말미에 ‘도환생’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도환생꽃은 환생에 사용된 주화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짐

작된다.

한편 몇몇 이본에서는 환생에 대한 부분과 이를 기념하는 고리동반에 대한 언급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자.

어느 동안 어머니 열두 신뻘 우의로 왕대뿌루기가 꼬장꼬장 났더라.  
그 때엔 할락궁이 설운 어머니 누워난디 흑인드 내뵈니까.  
방울방울 고리안동벽 설연(設宴) 허여간다.  
어머니 조은 얼굴 조은 신체 열두 신뻘  
왕대 뿌루기 뽀족뽀족 얼거지고 트러져 나난 법으롭서  
고리안동벽 허민 가운데로 고망 톨랑 뎃섭허영 찢르는 법 아님네까.  
이공은 꽃불합네다.

<이공본풀이 - 이승순 本>

어머니 누워난 자리에 반죽허면 동글동글 멘드는 게, 일곱 방울을 멘들앗구나. 그냥 스가칩이  
죽은곳엔 일곱 방울, 스당클 멘 곳엔 가민, 방울방울 열네 방울, 십방칩인 안팎으로 스물네 방울  
헤영, 병거떡 허고, 어머니 뎃섭으로 목 걸련 죽어부러 낫쟁 헤영 뎃섭 찢렁.  
옛날은 그거 머리엔 허영 문막 따와 낫수다만은, 요새에덜은 간세덜 허영 그걸 그자 뱅뱅뱅  
데와당 꼭허게 찢르곡, 그 우이, 너울지허영 씌우는 건 거미줄, 씌와낫쟁 허영.  
종이로 톨랑, 서른식 하늘법  
마련헤영 거미줄 대신 멘들앙 너울지 씌우고, 젤 우인 돛박낭에 간, 목 매연 죽여부러젠 헤영,  
원래가, 고리동반에는 돛박낭허영 젤우인 찢르는 법이웨다에.

<이공본풀이 - 이용옥 本>

“어머니 누워난 자리 그냥 네불리아.”  
고리안동벽 자동벽이여. 방울 방울 일곱 방울, 방울방울 열네 방울  
십방 칩인 안팎 스물여섯 방울 삼십삼천 서른식 하늘 법 청너울 백너울 둘러치여간다.  
저싱법은 마련허난 제인장저님광 제인장저 톨덜은, 나쁜 일을 헤여낫져. 수리멜망악심꽃으로 들  
어사라. 어머니는 죽언 도환생 헤였수다. 저싱 유모 어명으로 들어삽서.

<이공본풀이 - 고순안 本>

어머니 슬 썩은 흙인들 그냥 나뉘 가민 아이 된다. 어머니 죽영 슬은 다 처정 눈고망으로영 코영  
데썩덜이 그냥 나오라노난, 그걸로 방울방울, 일곱 방울도 만들고 열두 방울도만들고, 그걸 톨 데

코쟁이로 꼬양 데썸으로 헤영, 만들양 그 고리동반도 만든댕 험네다.

<이공본풀이 - 양창보 本>

위의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고리안동벽, 즉 고리동반이다. 이는 쌀로 만든 방울 모양의 떡으로, 댕뉘를 가운데로 꿇고 종이로 싼다. 이 떡은 할락궁이의 어머니 원강암이가 제인장재에게 죽임을 당하여 청대숲에 내던져진 신신에 댕뿌리가 얽혀졌던 모습을 나타낸다. 현재 고리동반은 <이공본풀이> 이후 이어지는 ‘이공맞이’에서 의례의 절차상 소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의례가 원강암이의 환생이 아닌 죽음에 방점을 두고, 그를 기념하는 고리동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정진희는 고리동반이 원강암이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원강암이가 환생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의례상 원강암이의 환생보다 그녀의 죽음에 더 주목하여 죽음의 형상인 ‘고리동반’을 만든 것은 원강암이가 되살아났다는 사실보다는 그녀가 무엇을 위해 죽었고, 무엇에 의해 되살아날 수 있었는지가 신화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sup>24)</sup>고 언급한다.

[T]는 ‘원강암이’와 ‘할락궁이’가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에 도착하며, 중심인물들이 모두 신으로 좌정된다는 내용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특히 신격을 부여받지 못했던 원강암이와 할락궁이가 ‘죽음’과 ‘재탄생’을 통해 신격을 부여받아 서천꽃밭에 도착하여 신으로 좌정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도착함에 따라 기존에 해체되었던 ‘가족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결과로도 이어지게 된다.

<이공본풀이>의 서사에서 중심인물들은 모두 신으로 좌정되고 있는데, 아버지인 사라도령은 ‘저승아방’으로, 환생한 원강암이는 ‘저승어멍’으로, 그리고 할락궁이는 사라도령의 자리를 물려받아 꽃감관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말은 몇몇 이본에서만 확인이 되고 있으며, 그 밖의 이본에서는 위의 사건과 다른 결말을 보이고 있다. <이공본풀이>의 결말이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해서 현용준 교수는 “<이공본풀이> 신화가 ‘불도맞이’라는 제차와 이공본풀이(또는 이공맞이)라는 제차에서 노래로 불리는데, 불도맞이에서는 띠 한 줌을 묶어 멸망약심꽃이라 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고리동반’이라는 떡을 만든 유래를 설명하기도 하는 반면, 이공본풀이 제차에서는 설화형으로 결말을 맺기 때문에 결말이 이리저리 달라진다.”<sup>25)</sup>고 보았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결말이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이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각 이본들의 결말을 살펴보기로 한다.

24) 정진희, 앞의 논문, pp.191~192.

25)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p.62.

그 자리에 장제깃 족은똥아기 죽여두고  
어명국을 인도허연 서천꽃밭으로 들어가,  
그때에 어머니 죽연 청대왔디 흑대왔디 청새왔디 데껴난 법으로  
청대 7뜯 청스룩 흑대 7뜯 흑스룩 열두 풍문 주는 법이웨다.

<이공본풀이 - 안사인 本>

위의 이본에는 ‘어머니 죽여 청대밭, 흑대밭, 푸른 띠밭에 던졌던 법으로 청대 같은 청사룩, 흑대 같은 흑사룩이 사악한 열두 풍운을 주는 법입니다.’라는 내용이 결말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설화형의 결말로 보기 어렵다. 위의 내용은 사악한 기와 열두 가지 풍운조화가 생겨난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수레멜망약심꽃’이라는 주화가 생겨나게 된 기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sup>26)</sup> 결국 안사인 본은 멜망약심꽃이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불도맞이’에서 구연되는 노래를 채록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안사인 본과 같이 ‘불도맞이’에서 불렸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본은 앞에서 살펴본 이승순 본과 이용옥 본, 고순안 본, 양창보 본이 있다. 이들 이본은 안사인 본과 달리 ‘고리동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 ‘고리동반’이라는 떡에 대해서 그 유래를 설명하는 이본이 더 존재한다. 다음을 살펴보자.

월광아미 솟아난다. 어명 누워 난디로 흑도 마감뉘여 굽굽하게 보여간다.  
몸에 놓아그네 고삐 아래 동글동글 고리 미여그네 고리돌언 안동벽은 신동벽을 마련한다.  
마련허난, 마련허난에 족은곳에는 일곱방울이여 심방칩에는 족은곳에는 열늑방울  
큰곳에는 스물 9뎡방울 고리안동벽 신동벽을 마련허는 법이로다.  
그법으로 그뒤로는 고리안동벽을 설연허는 법이 마련뉘엿수다.

<이공본풀이 - 한생소 本>

한생소 본에서는 고리안동벽, 즉 고리동반이 생기게 된 유래를 이야기의 결말에서 설명하고, 뒤로 가서는 수레멜망약심꽃으로 본을 푸는 내용이 이어지면서 마무리된다. ‘고리동반’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위에 이본이 이승순 본과 마찬가지로 ‘불도맞이’에서 구연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이본들을 제외한 그 밖의 이본들은 모두 설화형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26) 이수자,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학사적 위상 -이공본풀이계 서사물의 변용과 의미(1)-」(『제주도 연구』, 제10집, 1993), pp.23~24.

사라도령은 꽃감관 살고  
신산만산한락궁이는 어머니를 살리고  
모조간이 영광스럽게 삽디다.

<이공본풀이 - 고대중 本>

고대중 본은 사라도령이 계속해서 꽃감관의 자리를 이어간다는 점, 원강암이나 할락궁이가 신으로 좌정되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앞에 제시한 결말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아방 왕이 깃득하다 충찬하고  
나는 사라서 서천꽃밭 대왕이 되고  
너는 꽃감관이 되라 해야

<이공본풀이 - 박봉춘 本>

꽃밭디 물주는 얘기들은 원강암이가 저싱어명으로 들어산 그늘루고,  
또 사라도령은 저싱 아방이 되연 살림을 하고, 한락동인 아방물림 하연 꽃감관이 되난

<이공본 - 조흥대 本>

할락궁인 아방 앓아난 방석에 앓안, 꽃감관을 하고, 사라국 사라대왕은 저싱 아방이 되고,  
원강암인 저싱 어머이 되웁네다.

<이공본 - 고산옹 本>

박봉춘 본에서는 원강암이가 신으로 좌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조흥대 본과 고산옹 본의 경우는 중심인물들 모두가 신으로 좌정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 2. ‘떠남 - 시련 - 좌정’의 敍事

앞에서 우리는 <이공본풀이>를 소설의 구성단계인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각 단계의 핵심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발단은 사라도령과 원강암이의 탄생, 전개는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사라도령과 원강암이, 위기는 원강암이와 할락궁이의 시련, 절정은 할락궁이의 징별, 결말은 원강암이의 환생과 신으로 좌정하는 주인공들이 된다. 이러한 핵심 사건들을 다시 재구성하여 살펴보면, 전체 텍스트가 세 개의 서사적 줄기의 의해서 전개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반부는 사라도령이 원강암이와 함께 꽃감관을 하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떠남’이 중심내용이며, 중반부는 원강암이와 할락궁이의 ‘시련’이 중심을 이루고, 후반부에서는 할락궁이의 징치, 원강암이의 환생, 신으로의 좌정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는 ‘떠남 - 시련 - 좌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결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인 - 과정 - 결과’의 구조로 나타나고 있어 텍스트의 전체 서사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의 구조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과의 구조는 전체 서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시련의 단계에서도 나타남으로써, 일관된 흐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줄거리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각 단계마다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인물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즉 ‘떠남’의 단계는 ‘사라도령’이 중심이 되어 사건이 전개되고, ‘시련’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사라도령은 약화되고, 오히려 ‘원강암이’가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적 인물이 된다. 이 변화는 시련단계의 후반부에 이르러 또 다시 발생하게 되는데, 시련의 후반부에서 원강암이의 역할은 약화되고 ‘할락궁이’가 사건의 중심인물로 부각된다. 이렇게 볼 때, <이공본풀이>는 1인의 주인공에 의해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주인공이 차례로 부각되어 서사가 전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단계마다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들이 텍스트의 결말 부분에서 만나 모두 신으로 좌정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공본풀이>가 한 인물의 삶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경험하는 시련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텍스트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이공본풀이>는 제주도 무당굿의 하나인 주화관장신의 신화인 동시에 그 신화를 노래하고, 신이 강림하기를 기원하는 제차로서, 명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공’이라는 신의 근본을 풀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공본풀이>는 제의의 한 요소로서 노래 불리는 신성한 무속 신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할락궁이의 탄생과 성장과정, 신격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난과 시련,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신으로 좌정된다는 줄거리가 담겨 있다. <이공본풀이>에서 나타난 ‘떠남 - 시련 - 좌정’의 서사구조는 조셉 캠벨이 제시한 ‘분리(출발) - 모험(시련) - 회귀(사회로의 재통합)’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조셉 캠벨이 제시한 서사구조는 반 겐넵이 제시한 통과의례의 과정을 영웅 신화의 구조로 발전시켜 정립한 것이다. 결국 <이공본풀이>는 한 인물이 신으로 좌정되는 영웅의 일대기와 같은 구조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 3. ‘고난 - 고난해결’의 崇高美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공본풀이>는 서사구조인 ‘떠남 - 시련 - 좌정’의 단계마다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중심인물별로 서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들의 삶은 전체적으로 ‘고난’ - ‘고난해결’의 구조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사라도령의 시련은 대부분의 이본에서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가 꽃감관이 되기 이전까지의 삶을 ‘가난’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 자체가 사라도령에게 있어서 ‘고난’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목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옥황의 명에 의한 시작된 여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꽃감관이 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가난’이라는 운명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라도령은 꽃감관이 됨으로써, ‘가난’이라는 고난을 극복하고 해결하게 된다.

원강암이는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여정 자체에 있어 사라도령과는 그 입장이 달랐으므로,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여정부터가 그녀에게 고난의 시작이 된다. 발병이 난 원강암이는 제인장재의 집에 도착하면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이본에서 알 수 있듯이 제인장재의 동침요구를 거절한 원강암이는 깨진 동이에 물을 채우는 등의 인간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노역을 수행한다. 원강암이는 성실하게 노역을 수행하였지만,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 떠남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다. 갖은 고문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인 할락궁이가 간 곳을 말하지 않는 그 의지 속에는 어머니이기에 보일 수 있는 숭고한 모성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고결한 희생은 환생을 통해 보상받음으로써, ‘저승어명’이라는 신으로 좌정될 수 있는 신성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때, 원강암이의 삶은 고난과 이를 해결하는 구조로 나타나며, 이러한 구조는 ‘시련’ 부분을 관통함으로써, <이공본풀이>의 서사가 전체적으로 숭고하면서도 웅장한 울림을 갖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할락궁이 역시 원강암이처럼 고난과 고난해결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할락궁이의 고난은 탄생 이후부터 시작된다. 15세가 되자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표한 할락궁이는 원강암이에게 아버지에게 대해 알게 된 후 서천꽃밭으로 향한다. 이 때 그를 추격해온 천리둥이와 만리둥이라는 개들을 미리 준비한 범벅을 통해 멀리 보냄으로써 추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후 서천꽃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 번의 걸쳐 물을 건너게 되는데, 물을 건너가는 과정에서 할락궁이는 여러 시험에 부딪치

게 되며, 이를 힘과 지혜를 통해 해결하면서 무사히 물을 건너게 된다. 여기서 시험은 할락궁이에 주어진 고난이며, 이를 해결함으로써 서천꽃밭에 도착하게 된다.

서천꽃밭에 도착한 할락궁이가 다시 제인장재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할락궁이나 원강암이의 고난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할락궁이가 제인장재의 집에서 그들의 일족을 멸하는 것과 죽은 원강암이를 환생시키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고난이 일거에 해결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원강암이와 할락궁이에게 주어졌던 ‘고난’은 결말에 신으로 좌정됨으로써 ‘해결’이 되고, 이렇게 볼 때 <이공본풀이>의 서사는 주인공들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고난 - 고난해결’의 구조로 나타나며, 전체적으로는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서 점차 심화되는 구조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 Ⅲ. 이공본풀이에 드러난 通過儀禮

인간의 의례에 관한 연구는 타일러(E.B. Tylor)의 ‘원시문화’와 프레이저(J.G. Frazer)의 ‘황금가지’를 통해 19세기에 시작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타일러와 프레이저는 인류학적 관점, 뒤르켐은 사회학적 관점, 스미스와 오토, 엘리야데는 종교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들의 연구를 토대로 한 의례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보편적인 합의 없이 분화되어 발전하였다. 19세기의 의례에 관한 논의들은 대체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통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20세기에 오면서 기존 이론에 대한 반발로 종교적인 의례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기능주의’가 대두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通過儀禮’라는 개념은 프랑스의 민속학자 반 겐넵에 의해서 처음 정립되었다. 그에 의하면 통과례란 인간이 삶의 전환기마다 일정한 관문을 통과하는데, 탄생, 성장, 결혼, 죽음 등과 같이 중요한 시기에 치르게 되는 의례를 지칭한다. 개인은 인생 고비에 수반되는 의례의 틀을 통해 지금까지와 다른 지위와 신분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

반 겐넵은 재생을 인생과 우주의 법칙으로 보고 있다. 어느 체계이든 그 체계에서 발견되는 에너지는 점점 없어지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재생되어야 한다. 그는 이러한 재생의 법칙이 사회적 영역에서는 통과례를 실현함으로써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례적 죽음과 부활에 의해 성취된다고 보았다.<sup>27)</sup> 그는 통과례의 과정이 새로운 공간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고 다시 문을 열고 나가는 과정과 같다는 의미에서 ‘通過’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설 때 어떤 특별한 행위(儀禮)가 수반된다고 하여 ‘通過儀禮(Rites of Passage)’라고 명명하였다.

이렇듯 통과례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의례적 죽음과 재생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과례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로, 정신적 경계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경계를 통과할 때 따르는 모든 의례, 설, 추석 등의 연중 의례와 동제, 기우제 등도 일종의 통과례로 보아야 한다.<sup>28)</sup> 따라서 통과례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류학이나 민속학계는 그중 일부, 예컨대 일생의례 정도를 통과례로 보는 경향이 짙었다. 성년의례나 혼인의례, 제사의례 등을 지칭하는 말로 통과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동양의 전통적인 관혼상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27) A. 반 겐넵,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p.7.

28) 변종현, 「통과의례의 양상과 그 기능 - A.V. Genep의 이론을 중심으로」 (『국문학논집』, 제14집, 1994), p.198.

보고 있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통과의례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조금씩 변화하였으며, 사회나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른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례는 인간의 삶 속의 실제적인 행위와 연관된 측면이 많다.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결혼기념일 등은 일상생활에서 되풀이 되는 행사이지만 이 같은 의례를 거치면서 생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인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의례적 행위들이 인간과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통과의례의 요소인 ‘聖俗’과 통과의례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이공본풀이>의 화소에 드러난 인물의 존재론적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 1. ‘聖俗’과 存在論的 變化

어떠한 대상이 사람들의 열망이나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때, 사람들은 이를 세속적인 것과 분리하여 신격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俗’은 세속적인 것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상의 범주를 의미하며, 이와 달리 신격화되는 대상은 俗과 분리된 비일상의 범주로서 聖을 의미한다. 俗이 거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俗된 것이라는 본질을 상실해야 한다. 에밀 뒤르켐은 聖을 창조하는 하는 것은 사회이며, 聖이 俗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종교가 탄생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에 따르면 원시 민족들은 보편적으로 성스러움과 속된 것을 분류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서 성스러움은 힘의 원천이며, 속된 것은 파괴의 원천으로 분류한다<sup>29)</sup>고 하였다. 따라서 聖은 ‘신성함’이라는 종교적 특징을 지니며, 俗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일상의 범주를 俗으로, 비일상의 범주를 聖으로 구분한다.<sup>30)</sup> 俗에 포함되는 대상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비일상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서 독특한 경험은 경험의 주체가 어떤 대상을 일상과는 다르게 느끼게 되는 순간을 말한다. 예컨대 마을에서 늘 보이던 큰 돌

29) M.엘리아데, 이은봉 역, 『성과 속』 (한길사, 1998), p.29.

30) 엘리아데는 聖과 俗을 통괄하는 개념으로 코스모스(cosmos)와 카오스(chaos)를 제시한다. 우주의 어원인 그리스어 코스모스는 ‘질서’를 의미하는 말로, 혼돈을 의미하는 카오스와 반대되는 말이다. 즉 코스모스는 질서화된 우주, 규칙성, 또는 완전함을 의미하며, 카오스는 미지의 우주이자 불규칙성, 불완전함을 뜻한다. 카오스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성스러움(聖顯)’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코스모스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성현이 나타나는 시간은 신성한 시간이 되고, 공간에 성현이 나타나면 신성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을 어느 순간 사람들이 신성한 돌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이 돌은 보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 엘리아데는 성스러운 것이 되는 사물은 언제나 그 자체로서 분리된다<sup>31)</sup>고 하였다. 따라서 ‘성스러움’으로 간주되는 돌은 그 주변의 속된 대상과는 분명하게 분리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런 ‘성스러운 대상’을 엘리아데는 ‘히에로파니(聖現)’라는 용어로 정의한다. ‘히에로파니’는 물, 대지, 돌, 산과 같은 각각 다른 우주적 차원에서 계시된 성스러운 것을 설명하는 데서 시작한다.<sup>32)</sup>

반 켄넵은 ‘聖’과 ‘俗’을 통과의례의 선행조건으로 보았다. 그는 “聖이란 절대적인 실체 혹은 특질이 아닌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전의 지위와 다른 지위에 들어간 사람은 세속적 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신성한’ 것이다”<sup>33)</sup>라고 하였다. 가령 聖과 俗을 종교적 세계와 세속적 세계로 보았을 때, 종교적 집단과 세속적 집단은 대체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엘리아데가 ‘성과 속의 역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면, 반 켄넵은 성과 속의 ‘작용과 반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성과 속이 상호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람들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때,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원시 사회에 가까울수록 聖이 인간 생활 대부분의 측면에 개입되어 출생, 출산, 사냥 등의 행위가 주술적이거나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 생활에서의 모든 변화에 대해서 성과 속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을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피해를 받거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컨대 한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가까운 친척을 제외하고는 모든 여성들에게 있어 신성한 일이 된다. 즉 임신한 여성은 통과의례적으로 ‘俗’에서 ‘聖’으로의 변화가 작용한 것이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은 신성한 영역에 머무른 것이 되며,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세속적인 영역에 머무른 것이 된다.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주변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금줄을 치는 풍습이 있는데, 여기서 금줄은 신성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분리하는 수단이자, 주변의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통과의례이며, 聖과 俗의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를 통제하고 조절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그래서 聖은 절대적인 속성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과의례의 반복을 통해 해로운 영향이 줄어들게 된다.<sup>34)</sup>

31) M.엘리아데,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6), p.67.

32) M.엘리아데, 이은봉 역, 앞의 책, p.47.

33) Anold Van Gennep, 『The Rites of Passage』 (Paris:Emile Nourry, 1909), p.12.

34) A.반 켄넵, 앞의 책, pp.42~43.

## 2. 通過儀禮의 과정과 普遍性 獲得

인간의 삶은 각 단계마다 전환의 시기가 찾아오기 마련인데, 이 때 이전의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通過儀禮’이다. 한 개인은 통과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된다. 반 켄넵은 이러한 인간 행위의 많은 측면들이 신성함, 다시 말하면 聖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출생, 결혼, 죽음과 같은 인간의 주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종교적 의례에 참여함으로써 일상은 거룩함으로 변한다고 보았다.

통과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개인이 어떠한 지위에서 또 다른 지위로의 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각 문화마다 의례의 형태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삶과 죽음’이라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이유는 통과례가 ‘도달과 완성’, ‘입문과 죽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과례의 대상자를 가리켜 신참자라 일컫는다.<sup>35)</sup> 신참자는 낯알에서 싹이 터 오른 새로운 초목을 가리킨다. 인간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낯알과 같이 먼저 죽음을 겪어야 한다. 예컨대 입문식에 참여하는 신참자는 존재론적으로 변화한다. 신참자는 입문식이 진행되는 깊은 숲 속에서 격리된 채 단련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은 일종의 ‘비일상’, ‘죽음’, ‘카오스’를 상징한다. 즉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코스모스에서 카오스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신참자는 이러한 입문식을 거쳐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등의 행위가 바로 재탄생을 의미한다. 여기서 ‘재탄생’은 ‘일상’, ‘삶’, ‘코스모스’를 상징함으로써 역이행의 과정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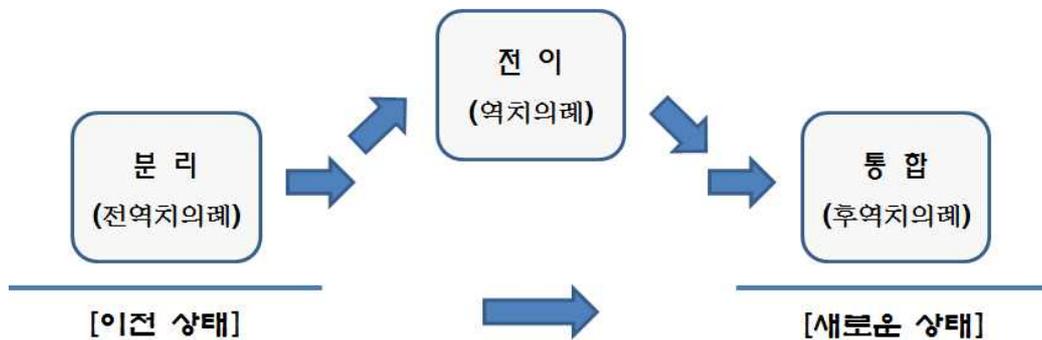
반 켄넵은 생성, 소멸, 생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再生의 원리’를 우주의 법칙으로 보았으며, 인간은 우주의 일부분이므로 우주의 작동원리인 ‘재생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였다. 그는 어떠한 체계이든 거기서 발생한 에너지는 시간이 흘러 점차 소멸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갱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갱신의 결과, 곧 ‘再生’은 통과례에 의해서 획득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통과례의 과정을 분류하여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각 민족에서 행하는 의례의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각 의례의 보편성에 주목한다. 그가 주목한 보편성은 단지 각 민족이나 부족들의 의례의 외형적인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통과례에 수반되는 의식과 관련된 활동들을 그 의식의 질서, 내용에 따라 분석하여, ‘分離의례(Rites of separation)’, ‘轉移의례(Transition rites)’, ‘統攝의례(Rites of incorporation)’라는 주요한 세

35) 이문철, 『통과례와 성』(평단문화사, 2000), p.22.

단계로 범주화하였다. 그는 이것을 전체로서 고려하여 ‘통과의례 도식(Schema of rites de passage)’라 지칭하였다.

하지만 세 단계의 범주가 모든 의례 유형이나 민족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분리의례의 경우는 장례식에서 뚜렷이 드러나며, 전이의례는 임신이나 약혼, 入社에서, 통합의례는 결혼식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에 통과의례의 전체 틀은 이론적으로 ‘전역치(분리) - 역치(전이) - 후역치(통합)’로도 구분이 된다.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형태는 똑같이 중요하거나 정교하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sup>36)</sup>

[그림 3-1] 반 켄넵의 ‘通過儀禮’ 도식



분리단계는 개인이 소유한 지위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는 성스러운 공간과 세속적 공간을 명확히 구분한다. 예컨대 원시 사회에서 성인식의 장소는 대부분 멀리 떨어진 숲속이나 격리된 공간이다. 원시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숲 속이 자연의 신성함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성인식에 참여하는 신참자들을 그 곳에 격리시킨다.

또 다른 예로 단군신화를 들 수 있다.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곰과 호랑이는 환웅을 찾아가 간청하게 되는데, 이에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며 동굴에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으며 지내야 한다는 금기를 제시한다. 곰과 호랑이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동굴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은 이전의 상태에서 분리된 채 동굴에 거주하게 된다. 즉 분리단계는 동굴이라는 격리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정화나 격리의 형태는 각 민족마다 조금씩 다르더라도 결국은 통과의례적 죽음을 준비하는 의식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여기서의 죽음이란 곧 이전 상태의 소멸

36) A.반 켄넵, 전경수 역, 앞의 책, pp.40~41.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의 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해야 하며, 동시에 일정 기간 금기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전이단계는 이전의 지위로부터 분리된 개인이 이전의 지위가 소멸된 애매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나타낸다. 즉 전이의례를 수행하는 개인은 새로운 지위를 획득한 상태가 아닌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련을 겪게 된다. 반 켄넬은 이러한 전이단계를 의례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마치 출입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sup>37)</sup>고 보았다. 전이의례에서 직면한 개인은 시련을 겪거나 금기사항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무사히 통과하면 다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기존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가령 단군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숙과 마늘만 먹으며 지내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시련이자 고행이며 금기사항이다. 이는 재탄생을 위한 전이의례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엘리야데는 이러한 시련과 고통은 초인적인 존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통과례 대상자의 영적변화가 목적이라고 보았다. 죽음의 시련은 성인식을 치루는 개인을 해체시킨다는 점에서 모태회귀를 상징적으로 함축한다. 이는 구덩이를 통과하거나, 동굴에 들어가거나 하는 행위 등으로 표현되며,<sup>38)</sup> 죽음의 제의를 통하거나, 천상에서 지상계로의 하강, 또는 지상계에서 천상계로의 상승 등으로 나타난다.

통합단계는 분리와 전이의 단계를 통과하여 새롭게 재생된 개인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앞 단계인 '전이'에서의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여 사회에서 새롭고 분명한 지위와 상태를 획득한 사실이 공인되는 단계로서 회귀, 재시작, 재탄생 등의 특징을 띠게 된다. 단군신화에서 호랑이는 중도에 포기하지만 곰은 금기를 지킴으로써 마침내 인간여성이 되었고, 사회에 통합된다. 이는 곰이 앞 단계인 전이 단계를 무사히 마치고 인간여성으로 재탄생되는 통합의례를 통해 사회에 통합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에 호랑이의 경우는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새로운 상태로 통합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상태로 다시 재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통과의례는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인간의 보편적 의식이자 삶의 모습으로,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끊임없이 반복된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통과례의 반복은 현재화된 신화적 시간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하나의 의례를 통해서 과거의 사건이 기념되고 반복될 때, 아무리 먼 과거라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에도 계속 재현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심방이 행하는 종교적 축제인 '본풀이'는 신화적 과거인 '태초에' 생겨난 성스러운 사건의 재현을 의미한다. 통과례는 이렇듯 종교적으로 무한히 반복되면서 후대에 전달된다.

37) A.반 켄넬, 전경수 역, 앞의 책, pp.40~41.

38) 이재실, 「신화적 상상계와 샤머니즘」(『샤머니즘연구』, 제2권, 2000), p.69.

그런데 통과 의례가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무한히 반복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것은 아니다. 문자가 없던 고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였으며, 이를 후대에 전달했다. 그래서 구비문학은 고대인들의 삶과 사고방식이 투영되어 있다. 예컨대 신화나 서사무가에는 고대인들의 삶의 모습과 사고방식이 농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조화한 통과 의례 역시 이들 문학 속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조셉 캠벨이 있다.

조셉 캠벨(Joseph Campbell)<sup>39)</sup>은 통과 의례를 신화의 기초적인 모형이라 보고, 반 켄넬이 제시한 통과 의례의 구조를 영웅 신화의 서사구조로 발전시켜 주인공의 삶을 ‘분리(출발) - 모험(시련) - 회귀(사회로의 재통합)’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분리단계는 주인공이 일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창조를 위한 첫걸음이 된다. 모험단계는 주인공이 시련을 겪는 단계로서 모험을 자초함으로 비극적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을 돕는 안내자 또는 조력자가 등장한다. 회귀단계는 모험을 완성한 주인공이 일상으로 회귀하는 단계이다. 주인공은 신비스러운 모험의 과정에서 동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이나 물건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온다. 지혜나 보물 등의 선물을 얻어 사회를 다스리는 왕이 되거나 신으로 추앙받는다.

캠벨이 제시한 구조는 한국의 영웅 신화나 서사무가의 구조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일례로 <바리공주>의 서사 구조를 보면 ‘분리 - 모험 - 회귀’의 단계를 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리공주는 공주로서 태어났으나 딸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버려지게 된다. ‘버려짐’은 영웅 신화의 주요 모티프로 작용하는데, 버려진다는 것은 신화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전 상태의 소멸임과 동시에 새로운 상태로의 출발이므로 분리단계로 볼 수 있다. 바리공주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모험을 자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리공주에게 있어서 모험단계가 된다. 이 모험을 위해 석가세존이라는 조력자가 바리공주를 돕게 된다. 바리공주의 모험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현실이 아닌 저승이라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반인들에게 저승은 대개 죽음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된다. 바리공주는 저승이라는 공간으로 진입하면서 죽음의 상태를 인식하였을 것이며,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련과 고행을 수행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무장승에게 제공한 장기간의 노동과 아이 출산이다. 이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은 회귀단계가 된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위대한 모험의 보상으로 바리공주는 오구신으로 좌정된다.

이처럼 통과 의례의 과정이 신화나 서사무가에서 나타나는 것은 통과 의례가 ‘죽음과 생성’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시사회의 인간들은 입사식을 통해서 존재론적 변화를 유도하는 체험을 하였는

39) J.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민음사, 2010).

데, 그때 이들은 죽음과 부활을 동반하는 행위를 수행하여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를 모방하게 된다. 즉 ‘소멸과 재창조’, 다시 말하면 죽음과 재탄생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모방하여 새롭게 재생됨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들의 사고방식이 신화나 서사무가에 반영됨으로써, 텍스트의 서사에 ‘죽음과 생성’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통과례의 과정은 신화나 서사무가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신화나 서사무가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점으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3. 이공본풀이에 드러난 通過儀禮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공본풀이>의 서사는 ‘떠남 - 시련 - 좌정’의 구조로 나타난다. 특히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인물이 사건이 전개되면서 순차적으로 부각되며, 결말에 이르러 주인공들이 모두 신으로 좌정되는 특징이 있다. 즉 서사구조의 각 단계마다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의 변화과정이 결말 부분에 이르러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공본풀이>의 핵심 사건들은 통과례의 과정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결 관계가 모여 하나의 서사구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각 단계에서 드러나는 핵심 화소들이 인물의 지위 변화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통과례의 도식을 통해 확인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하여 텍스트의 서사적 흐름에 나타난 인물의 지위와 공간의 변화를 대비하고자 한다.

#### 1) 떠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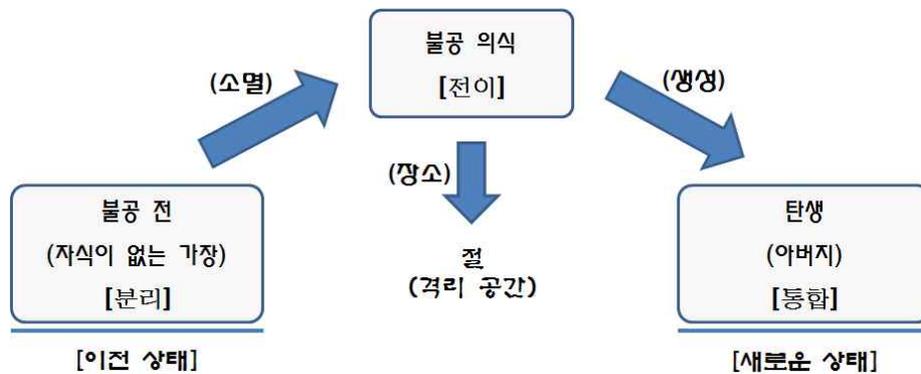
‘떠남’의 단계에서 드러나는 핵심 화소는 ‘불공’, ‘혼인’, ‘여정’이다. 이 단계에서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은 ‘사라도령’으로, 위에서 언급한 화소들은 모두 사라도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들 사건은 모두 인물의 지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과례가 드러나는 화소라고 볼 수 있다.

##### (1) 불공

‘불공’은 중심인물인 사라도령과 원강암이가 각각 집진국과 임진국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됨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탄생’이라는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들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원인(불공) - 결과(탄생)’라는 인과관계를 형성하지만, 인물의 지위변화를 동반하므로 통과의례적으로 ‘분리(불공 전) - 전이(불공) - 통합(탄생)’의 과정을 형성하고 있다.

집진국과 임진국은 불공을 통해서 각각 사라도령과 원강암이를 얻게 된다. 이는 집진국과 임진국이 통과의례 과정에서 통해서 ‘아버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집진국과 임진국은 ‘불공’이라는 의례를 통해서, ‘자식이 없는 가장’이라는 이전 지위에서 벗어나 ‘아버지’라는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존재론적으로 지위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다. 이들은 불공을 드리기 위해 ‘절’에 들어간다. 사건의 배경인 ‘절’은 통과의례에서 격리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불공을 드리기 위해 공물을 시주한다. 시주를 하는 무게가 백 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금기, 또는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 ‘집진국과 임진국’의 지위변화 과정



‘불공’이라는 의식은 집진국과 임진국이 ‘아버지’라는 새로운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지만, 사라도령과 원강암이가 인간으로서 세상에 처음 발을 디울 수 있게 해주는 계기로도 작용한다. 집진국과 임진국이 드리는 불공의 목적은 모든 이본에서 언급하는 ‘원불수륙’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불수륙은 부처님께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로, 천상계의 존재에게 기원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불공’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잇는 의식이 된다. 즉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원하면,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계에 있는 기원자의 집안에 아이를 내려 보내는 것이다. 사라도령과 원강암이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 집진국과 임진국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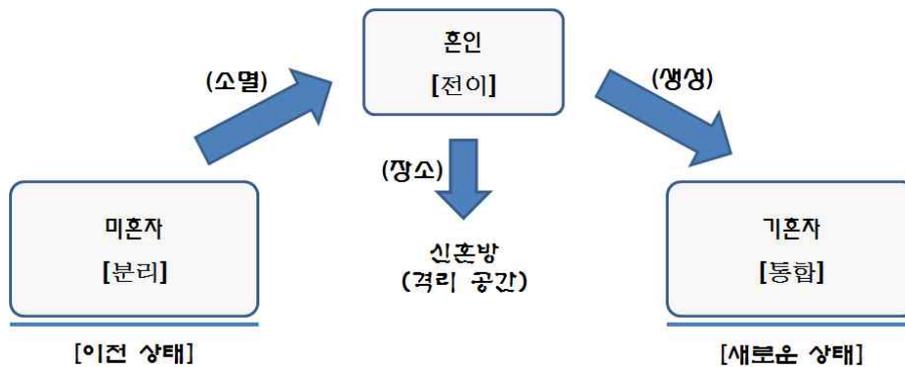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라도령과 원강암이가 태어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같은 모습을 보이지

만 이후의 행보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사라도령은 큰 어려움 없이 서천꽃밭에 진입하여 꽃감관이 되고, 순조롭게 신의 지위를 부여받는데 반해 원강암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수자는 <이공본풀이>의 내용이 부엉새가 서천꽃밭을 망치자 생불신이 꽃감관을 요청하여 사라도령이라는 남신이 꽃감관으로 살러 온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sup>40)</sup>고 보았는데, 이는 사라도령이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꽃감관’으로 내정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옥황의 명은 그것을 뒷받침한다. 당시 사람들에게 옥황은 천상계<sup>41)</sup>에 거주하는 성스러운 존재로, 그 존재가 내리는 명령은 한낱 인간으로서 절대 어길 수 없는 성현(城現)이 된다. 즉 사라도령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꽃감관이 될 운명이었으며, 옥황의 명에 의해서 신격을 부여받고 별 어려움 없이 서천꽃밭으로 진입하게 된다.

## (2) 혼인

혼인은 대표적인 통과의례의 유형으로, 대부분의 인간이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다. 사라도령과 원강암이는 혼인이라는 의례를 수행하기 전에 ‘미혼자’라는 사회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서로가 혼인을 한 후에는 ‘미혼자’라는 지위에서 벗어나 ‘기혼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3] ‘혼인’의 통과의례 과정



예로부터 이어져온 풍습에, 혼인을 하는 당일에 신랑과 신부는 한 방에서 같이 하룻밤을 보내고

40) 이수자, 「무속의례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한국무속학』, 제14권, 2007), p.422.

41) 일례로, 조흘대 본과 고산옹 본에서는 ‘저승’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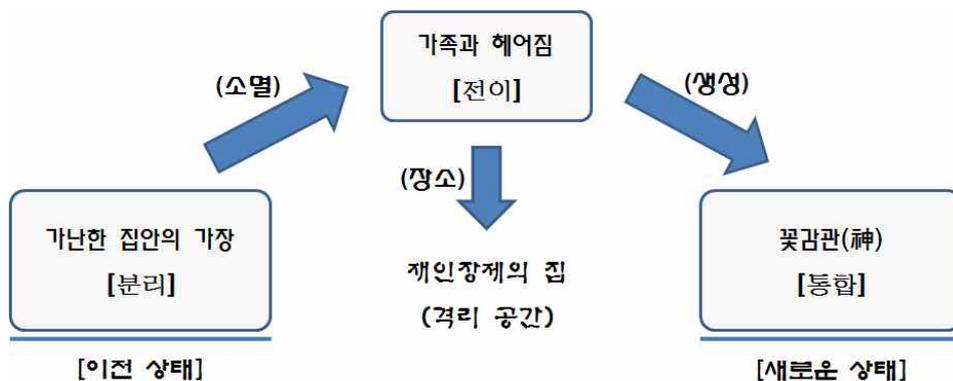
나야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여기서 ‘방’은 전이를 위한 격리공간이 된다. 그리고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금기이다. 이를 잘 수행하여 하루를 보내고 나면, 신랑과 신부는 각각 남편과 아내(또는 부인)라는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 (3) 여정 ①

‘여정’은 이공본풀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화소에 해당된다. 떠남 모티프로도 언급할 수 있는 ‘여정’은 사라도령과 원강암이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고난과 시련의 길로 접어드는 계기를 마련한다. 서사 전개상 사라도령은 ‘떠남’의 단계 이후에 서천꽃밭으로 진입하여 꽃감관이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되며,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건의 중심적 인물이 원강암이로 변화하고, 서사는 다음 단계로 전개된다.

서천꽃밭으로 떠남으로 인하여 사라도령과 원강암이는 기존의 일상적 삶에서 벗어난다. 이는 통과 의례의 과정 중 분리단계에 해당된다. 분리단계를 거치면서 그들은 제인장재의 집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한다. 이때 제인장재의 집은 격리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제인장재의 집에 머무르게 된 사라도령과 원강암이는 이후부터 다른 행보를 보인다. 즉 사라도령은 원강암이와 헤어진 후 서천꽃밭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神’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는 반면에 원강암이는 그대로 제인장재의 집에 남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변화 양상은 사라도령에게만 나타난다. 그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4] ‘사라도령’의 상태변화 과정



사라도령은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었지만 제인장재의 집에 도착하면서 가족과 헤어져 홀로 서천꽃밭으로 향한다. 이는 통과례의 과정 중에서 '분리 → 전이'의 과정에 해당된다. 그 이후 서천꽃밭의 꽃감관이 되면서 새로운 집단에 편입된다. 이 과정은 '전이'에서 '통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라도령의 상태변화 과정은 완전한 구성을 보이게 된다.

## 2) 시련

<이공본풀이>의 서사전개 상 '시련'의 단계는 시련의 주체에 따라 원강암이의 시련과 할락궁이의 시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중심인물인 원강암이의 시련과 죽음이 드러나며, 후자는 할락궁이의 시련이 드러난다.

'시련'의 단계는 <이공본풀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화소들이라 할 수 있는 '여정, 죽음, 징벌, 환생' 등이 모두 나타나고 있어 서사 전개상 매우 중요한 단계에 해당되며, 원강암이와 할락궁이가 이 과정을 거쳐 '회귀'단계에서 신으로 좌정되므로, 두 인물이 서천꽃밭에 진입할 수 있는 정당성, 즉 신격을 부여받는 단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공본풀이> 서사전개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볼 수 있다.

### (1) 여정 ②

'떠남'의 단계에서 드러난 여정 모티프는 시련의 단계에서 다시 나타난다. 그러한 이유는 할락궁이가 아버지인 사라도령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기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는 부친을 찾기 위한 것으로 탐색 모티프로 볼 수 있지만, 탐색의 과정이 사라도령처럼 서천꽃밭으로 향하는 여정의 형식이 강하므로 여정 모티프로 보았다.

서사의 흐름상 할락궁이가 서천꽃밭으로 향하게 된 것은 원강암이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원인이 된다. 사라도령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게 된 할락궁이는 증표를 품에 지니고서 가출을 결심하게 된다. 이어지는 '할락궁이의 가출'은 원강암이의 죽음에 대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할락궁이의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기도 한다.

할락궁이는 서천꽃밭으로 향하면서 제인장재가 부리는 개들의 추격을 받게 된다. 이는 할락궁이가 서천꽃밭으로 향하면서 겪게 되는 첫 번째 시련에 해당된다. 개들을 따돌린 이후에 할락궁이는 서천꽃밭에 들어가기 위해 세 번에 걸쳐 물을 건너게 된다. 몇몇 이본에서 서천꽃밭을 저승으로 언급하

는 것으로 볼 때, 할락궁이가 건너는 물은 삶과 죽음의 경계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삶과 죽음의 경계로서의 물이 등장하는 경우는 다른 무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리데기>에서 주인공인 바리데기는 저승에서 약수를 획득하고 돌아오는 길에 물 위를 떠가는 배를 발견한다. 바리데기가 본 물은 저승과 이승의 경계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불교에서는 삼도천(三途川)이라 한다. 삼도천은 사람이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고 일컬어지는 큰 내로,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3가지의 다른 여율이 존재한다고 언급한다. 바리데기가 삼도천을 목격했다는 것은 그녀가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었음을 의미하며, 그녀가 죽음의 상태를 경험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할락궁이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할락궁이는 3가지의 다른 여율을 건너는데, 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삼도천과 다를 것이 없다. 즉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는 행위를 보여준 것이다. 서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할락궁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련이나 고통을 경험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었으며 죽음을 경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할락궁이는 물을 건너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이 소멸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삶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상태에서 분리된 것을 말한다. 할락궁이는 물을 건너기 시작하면서 인간이라는 이전 상태에서 분리된다. 그럼으로써 할락궁이는 인간도 아닌, 그렇다고 신적인 인물도 아닌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는 전이단계에 해당된다.

## (2) 죽음

‘죽음과 생성(재생)’은 통과의례의 작동원리이다. 이 중 ‘죽음’은 통과의례적으로 ‘분리 → 전이’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시련, 고통, 두려움, 소멸 등을 동반한다.

<이공본풀이>에서 시련과 죽음을 모두 경험하는 인물로는 원강암이와 할락궁이가 있다. 이들은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존재론적인 지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서천꽃밭에 진입할 수 있는 신격을 지니게 된다. 할락궁이의 죽음에 대한 것은 앞에서 논의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서사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원강암이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원강암이의 죽음과정은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잔인한 모습을 보인다. 형틀로 고문을 당하는가 하면, ‘斬首’를 당해 청대밭에 버려진다. 원강암이는 이 과정에서 이겨내기 힘든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시련과 고통, 두려움은 통과의례적으로는 ‘분리 → 전이’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형태들이다.

원강암이의 죽음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신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며, 죽음을 겪은 후에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원강암이의 정신은 신체와 분리되면서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분리 - 전이 - 통합’의 과정 중 ‘분리 → 전이’의 과정과 유사하다. 즉 한 개인은 전이의 단계에 진입하면서 시련과 고통, 두려움을 겪게 되고, 이전 상태의 소멸을 경험함으로써 불완전한 존재가 된다. 원강암이는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지나 죽음에 이르게 되므로, 통과 의례상 전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때 나타나는 청대밭은 원강암이의 시신이 버려지는 곳으로, 통과 의례의 과정 상 격리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때, 원강암이와 할락궁이의 죽음은 통과 의례의 과정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그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5] 통과 의례 ‘죽음’의 과정



### (3) 징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은 할락궁이는 손가락의 피를 내어 궁녀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할락궁이의 피가 신성한 공간인 연못을 ‘不淨’으로 물들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연못에 피를 내어 할락궁이 자신의 부정을 연못을 통해 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화의 성질을 가진 물을 통해 할락궁이는 인간으로서의 속된 속성을 완벽하게 씻어냈음을 의미한다. 그럼으로써 서천꽃밭에 진입하게 되며, 아버지인 사라도령과 상봉하게 된다.

할락궁이는 사라도령으로부터 원강암이의 죽음에 대해 듣게 된다. 사라도령은 할락궁이에게 원강암이의 죽음을 알려주면서, 서천꽃밭에 데리고 들어가 여러 주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특히 서천꽃밭을 돌아보는 부분은 모든 이본들을 살펴보았을 때, 내용상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꽃감관인 사라도령이 할락궁이에게 꽃을 직접 건네주는 것으로, 이는 할락궁이가 ‘신’으로서의 완전한 상태가 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통과 의례의 관점에서 볼 때, 할락궁이가 아직까지 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과도기적 상태임을 말한다.

한편 할락궁이가 스스로 먼저 복수와 어머니의 환생을 위해서 꽃을 이용하려는 모습도 드러나고 있는데, 사라도령이 건네주는 것과 달리 할락궁이가 꽃을 적극적으로 채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서천꽃밭에서 적극적으로 꽃을 채집한다는 것은 할락궁이가 이미 꽃들의 쓰임새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꽃들은 인간이 진입할 수 없는 신성한 장소에 있는 대상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꽃의 쓰임새를 알고서 이를 채집한다는 것은 곧 신으로서의 능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는 할락궁이의 욕망과 관련이 깊다. 꽃을 사용함으로써 어머니를 살리고, 제인장재의 일족을 징벌하고자하는 욕망을 드러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생명과 죽음의 신으로서 좌정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욕망은 제인장재의 집에서 발견되는데, 할락궁이가 ‘生과 死’의 신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과 달리 사라도령은 꽃을 가꾸는 신의 모습이 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할락궁이에게 신적 능력을 부여한 사라도령은 천상 세계에 물러서 있는 ‘숨은 신’의 면모를, 할락궁이는 그 신을 계승하여 현실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즉 활동하는 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sup>42)</sup>

꽃을 획득한 할락궁이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또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인장재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가 제인장재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물을 다시 건너야 한다. 하계로 들어갈 때의 물은 쉽게 건널 수 있지만, 물을 건넌 이후에는 죽음의 상태이므로, 다시 현실로 되돌아오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계로부터 재생의 약속을 얻은 자 뿐이다. 바리데기가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아버지의 목숨을 살릴 약속을 얻었기 때문이다. 할락궁이 역시 현실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닌 물건에 환생꽃이라는 재생의 의미를 가진 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할락궁이 역시 재생의 약속을 얻은 자라는 의미가 된다.

할락궁이의 징벌은 매우 잔인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 조동일은 어머니에 대한 효행을 다 하기 위해서 장자와 그의 일족을 죽인 것<sup>43)</sup>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는 신이 되고자하는 할락궁이의 욕망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할락궁이는 통과의례의 과정에서 전이단계라는 과도기적인 중간 상황에 머물러 있다. 과도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태가 되거나, 또는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다. 새로운 상태가 되려면 과도기의 상황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시련을 이겨내고, 금기나 요구사항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할락궁이가 ‘神’이라는 집단에 통합되고자 하는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이

42) 정진희, 「제주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국문학연구』, 제7호, 2002), p.189.

43)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양상과 변천』(문학과 지성사, 1997), pp.101~102.

단계를 무사히 통과하여 새로운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집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사라도령이 할락궁이에게 꽃을 건네주면서 원강암이의 복수를 하고, 다시 살려오라고 한 것은 전이단계에 있는 할락궁이가 수행해야할 일종의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할락궁이는 주화를 통해서 사라도령이 요구한 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서천꽃밭의 신으로 좌정됨으로써 ‘神’이라는 새로운 집단에 통합된다. 따라서 죽음을 경험한 할락궁이가 신으로서 재탄생되어 새로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은 통과의례에서 ‘전이 → 통합’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4) 환생

‘환생’에 관련된 인물로는 원강암이가 있다. 원강암이가 서천꽃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라도령과는 달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녀는 제인장재에게 고초를 겪게 되며,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 후 서천꽃밭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신성한 대상, 이를테면 환생꽃을 통해 비로소 재생하게 된다. 그래서 원강암이의 환생에 사용된 여러 주화들은 ‘재생’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앞서 원강암이는 죽음을 통해 ‘분리 - 전이’의 과정을 거쳤음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할락궁이에 의해서 새롭게 재탄생됨으로써, 통과의례적으로 ‘전이 - 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환생한 원강암이는 결말에 이르러 ‘신’으로 좌정하는데, 이것은 ‘죽음’이라는 ‘전이’의 단계를 통과하여, ‘신’이라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할락궁이가 신으로 좌정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 3) 좌정

‘좌정’의 단계는 중심인물들이 모두 신으로 좌정한다는 내용이 드러난다. 지상의 인간이 천상계의 신으로 좌정한다는 점에서 ‘상승 모티프’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기존에 이미 꽃감관으로 내정되어 있었던 사라도령과 달리 신격을 부여받지 못했던 원강암이와 할락궁이가 ‘죽음’과 ‘재탄생’을 통해 신격을 부여받아 서천꽃밭에 도착하여 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함에 따라 기존에 해체되었던 ‘가족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결과로도 이어지게 된다.

<이공본풀이>의 서사에서 중심인물들은 모두 신으로 좌정되고 있는데, 아버지인 사라도령은 ‘저승아방’으로, 환생한 원강암이는 ‘저승어멍’으로, 그리고 할락궁이는 사라도령의 자리를 물려받아 꽃감

관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같은 결말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할락궁이와 원강암이는 모두 죽음 이후에 신으로 좌정된다는 공통점을 보이게 된다. 이는 통과의례의 작동 원리의 하나인 '재생'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 때에 수반되는 형태는 환생, 생성 등으로 인물별로 다른 유형을 보이지만, 내포된 의미는 '재탄생'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6] 통과의례 '재생'의 과정



분리 단계를 거친 원강암이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신체가 분리되어 머리는 청대밭에, 잔등이는 흑대밭에, 무릎은 띠밭에 버려지게 된다. 온전한 신체를 이루지 못하고 각각이 분리되어 있으니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전이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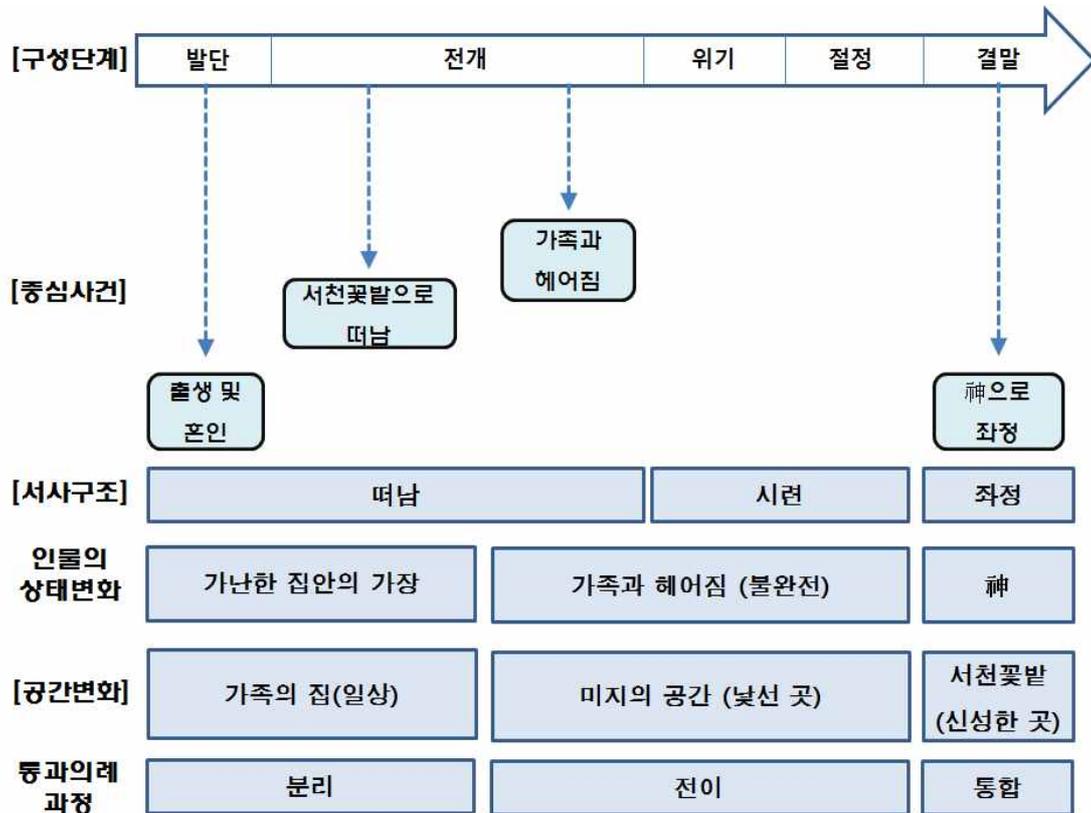
전이 단계를 거친 원강암이는 할락궁이가 가져온 환생꽃을 통해서 재탄생(환생)하게 된다. 환생꽃은 서천꽃밭에만 존재하는 신성한 꽃으로 성현(聖現)의 대상이다. 이 꽃을 통해 환생한 원강암이는 통과의례적으로 '俗'에서 '聖'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서천꽃밭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서천꽃밭에 진입한 원강암이는 '저승어멍'이라는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데, 이는 그녀가 통합단계에서 '神'이라는 집단에 새롭게 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할락궁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물을 건너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이후 전이 단계에 머물게 된다. 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할락궁이는 아직 신으로 인정받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이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제인장재의 일족을 징벌하고, 원강암이를 살려냄으로써 자신이 '생과 死'를 관장할 수 있는 신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속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신성한 행위로, 할락궁이의 속성이 '俗'에서 '聖'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 이후에 서천꽃밭에 돌아와 사라도령의 뒤를 이어 꽃감관, 즉 이공신으로 좌정함으로써 '神'이라는 집단에 통합된다. 이는 바리데기가 자신의 부모를 살리고 오구신으로 좌정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 4) 상태 변화과정과 서사구조

<이공본풀이>에서 드러나는 주인공들의 지위 변화과정은 텍스트의 서사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지위의 변화 과정을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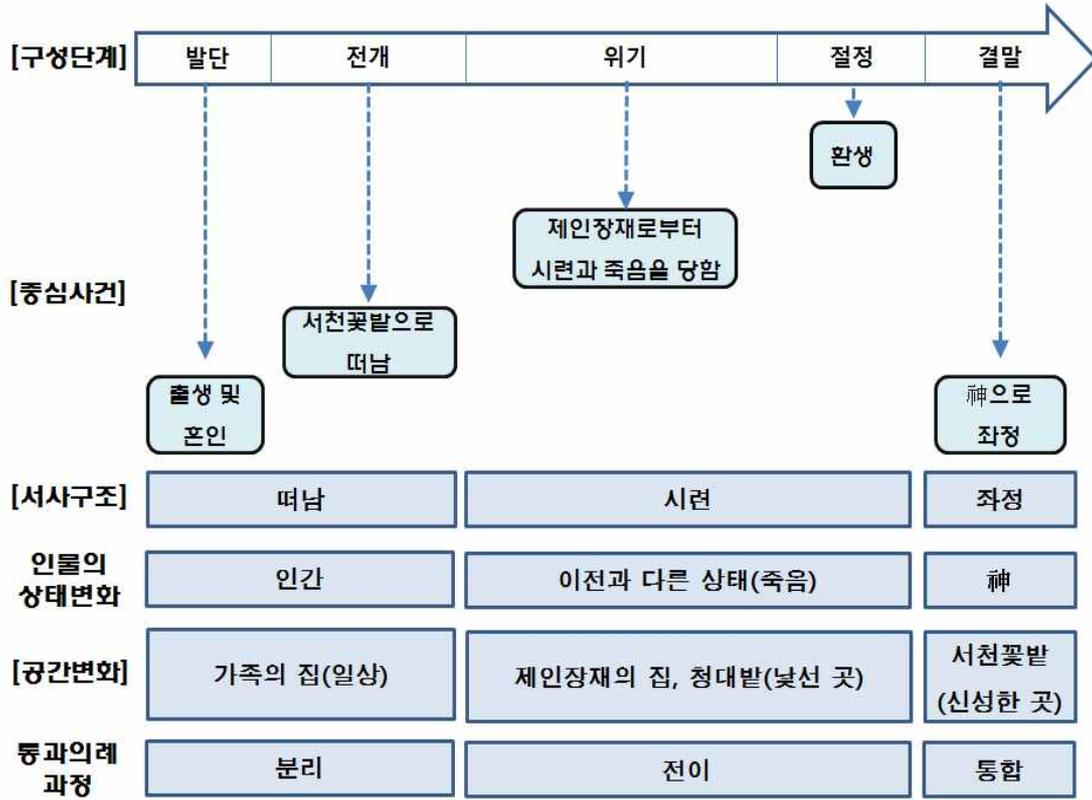
[그림 3-7] '사라도령'의 상태 변화와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 비교



사라도령은 원강암이와 함께 서천꽃밭으로 향하게 되면서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서천꽃밭으로 향하면서 발병이 나버린 원강암이로 인해 사라도령은 제인장재의 집에 머물면서 가족과 헤어지게 되고, 그러한 상태로 홀로 서천꽃밭으로 향한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라는 완전한 집단에 머물러 있던 사라도령은 제인장재의 집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한 후 가족과 떨어지는 불완전한 상태로 변화한다. 그리고 결말에 이르러 신으로 좌정하게 되면서 새로운 집단에 통합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원강암이의 상태 변화와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를 대비하기로 한다.

[그림 3-8] '원강암이'의 상태변화와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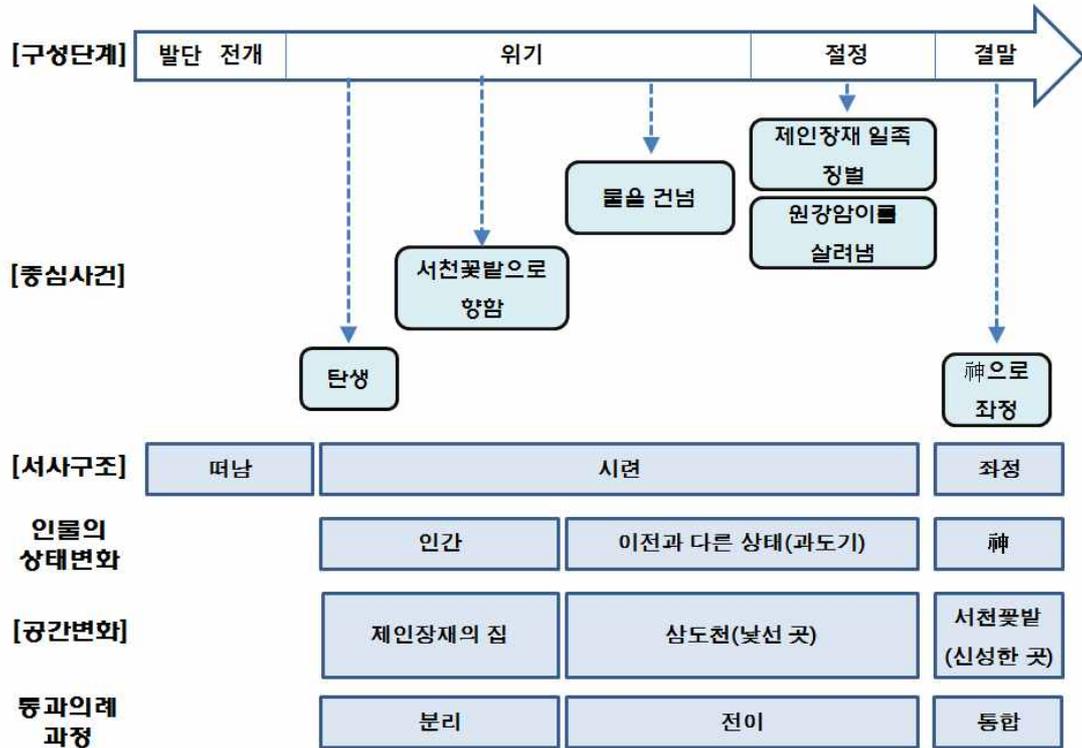


원강암이는 사라도령을 따라 서천꽃밭으로 향하게 됨에 따라 평범한 여성의 삶이라는 이전의 상태에서 분리된다. 서천꽃밭이라는 신성한 공간에 신격을 부여받지 못한 인간이 진입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녀의 행위는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강암이가 스스로 이전의 상태에서 분리된 것은 사라도령을 따라 서천꽃밭에 들어가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전의 상태에서 분리된 원강암이는 제인장재의 집이라는 이전과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공간의 변화는 통과의례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변화이다.

원강암이는 제인장재의 집에서 시련과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전이단계에 접어든 원강암이는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청대밭'이라는 공간에 격리된다. 그 이후에 원강암이는 환생꽃이라는 '재생'의 의미를 지니는 신성한 대상을 통해 환생한다. 환생한 원강암이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속성, 즉 聖의 속성을 갖게 되면서 신격을 지닐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고, 비로소 서천꽃밭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서천꽃밭에 진입한 원강암이는 '저승어명'이라는 신으로 좌정한다.

마지막으로 '할락궁이'의 변모과정을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9] '할락궁이'의 상태변화와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 비교



할락궁이의 변화과정은 사라도령이나 원강암이와 달리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는 첫째, 할락궁이의 탄생시기 때문이다. 할락궁이는 사라도령이 없는 시기, 즉 구성단계상 '위기'의 단계에서 그의 삶이 시작된다.

다음으로 사라도령이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중 '떠남' 단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원강암이와 할락궁이는 '시련' 단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시련의 전반부는 원강암이가, 시련의 후반부는 할락궁이가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적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할락궁이는 사라도령과 원강암이가 그랬던 것처럼 서천꽃밭을 향해 길을 떠난다. 그래서 <이공본풀이>에 '여정'의 화소가 두 번 나타나는 것이다. 서천꽃밭으로 향하면서 할락궁이는 제인장재가 부리는 개들의 추격을 받기도 하였으며, 세 번의 물을 건너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해결한다.

서천꽃밭에 도착한 후 할락궁이는 사라도령으로부터 원강암이가 죽었음을 듣게 된다. 이 때 할락궁이의 상태는 비록 '인간'의 상태에서 분리되었지만 신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이 아닌 과도기적 상태였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사라도령에게 꽃을 건네받게

된다.

제인장재의 집에 도착한 할락궁이는 사라도령으로부터 건네받은 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적극적으로 꽃을 활용하여 제인장재의 일족을 징벌하고, 원강암이를 환생시킨다. 할락궁이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꽃감관’이라는 새로운 상태로 태어나게 되며, ‘神’이라는 새로운 집단에 통합된다. 이상의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인공들의 상태변화 과정을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비교해보면, 사라도령과 원강암이의 경우는 ‘떠남 - 시련 - 좌절’의 단계에 접어들 때마다 상태나 공간의 변화가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할락궁이의 경우는 탄생의 시기가 이야기의 중반부라는 점과 위기의 후반부에 사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앞선 주인공들과는 전개의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인물의 변화가 한 사건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구조의 각 단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의 변화에 따라 발생함으로써, 하나의 서사구조 속에서 ‘죽음’과 ‘생성’의 원리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이 결말에 이르러 하나로 통합되면서 소설과 같은 견고한 구조를 보이게 되며,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신성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 IV. 이공본풀이의 通過儀禮的 意味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주인공들의 삶을 통과의례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주인공들은 서천꽃밭에 도착한 이후에 신으로 좌정됨으로써, ‘인간’이라는 기존의 상태에서 벗어나 ‘神’이라는 새로운 상태 및 지위로의 변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다룰 통과의례적 의미는 이러한 주인공들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인물의 변화 과정과 관련된 논의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이공본풀이>의 통과의례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인물의 지위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 [2] 변화과정에서 ‘시련’은 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가?
- [3] 통과의례의 과정 중 ‘통합’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서천꽃밭’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 1. 人物變化와 運命克服

통과의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상태나 지위의 변화과정을 구조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는 통과의를 수행하는 주체의 지위변화가 자연적인 것이라면 관문의 성격을 지니는 의례적인 행위를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과의례는 새로운 지위로의 변화를 이루려는 주체의 의지에 의해 시작되며, 그 과정은 주체의 의지, 즉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이 된다. <이공본풀이>에서 드러나는 통과의례의 과정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텍스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상태변화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인공들은 시련과 죽음의 관문을 맞이하게 되며, 이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서천꽃밭에 도달하게 된다. 주인공들이 스스로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련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자동적으로 ‘神’의 지위를 획득한다면 주인공들은 서천꽃밭으로 떠나거나, 시련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공본풀이>의 주인공

들은 어떠한 욕망을 지니고 있었는가?

표면적으로 이들은 모두 서천꽃밭에 가야한다는 욕망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려는 욕망이 존재했다. 사라도령은 옥황의 명에 의해서 서천꽃밭으로 향하게 되지만, 차사가 집에 오기도 전에 먼저 서천꽃밭을 향해 길을 떠난다. 원강암이 역시도 사라도령을 따라 서천꽃밭으로 향한다. 사라도령의 집안은 차사에게 한 끼의 식사도 대접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가난했으며, 사라도령과 원강암이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난'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멀고 험한 서천꽃밭을 향해 떠나게 된다.

할락궁이 역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향한다. 제인장재의 집에 머물며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힘든 노역을 한다. 그러다 성인인 15세가 되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된 후 가출을 결심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아버지를 찾아 떠나겠다는 운명극복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주인공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인간 → 神'으로의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으며,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순간을 보내야 했다. 즉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를 극복하려는 삶을 살았으며, 그러한 삶의 자세가 그들로 하여금 '神'이라는 새로운 지위에 도달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주인공들의 변화는 운명극복이라는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神'으로 좌정함으로써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인공들이 같은 욕망을 추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의 과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신격을 부여받은 사라도령과 달리 원강암이와 할락궁이는 신격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라도령과 다른 주인공들과의 입장 차이를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사라도령은 꽃감관으로 내정되어 있었으므로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서천꽃밭에 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강암이와 할락궁이는 옥황의 의해 신격을 부여받은 사라도령과 입장이 다르다. 따라서 원강암이와 할락궁이가 서천꽃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이들은 무엇을 지불해야 서천꽃밭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시련'과 '고통'의 과정이다. 원강암이와 할락궁이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俗된 속성을 파괴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는 자세를 드러낼 수 있다.

## 2. 巫俗的 試鍊과 正當性 獲得

통과의례의 목적은 개인이 어떠한 지위에서 또 다른 지위로의 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각 문화마다 의례의 형태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죽음과 생성'이라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현상은 텍스트 내에서 시련과 고통, 재생을 통해 드러나며, 서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주인공이 지위나 상태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야기의 대다수는 '시련'이나 '재생'에 관련된 내용이 필수적으로 나타나며, 다른 부분에 비해서 서술되는 내용이 많다. <이공본풀이> 역시 '시련'의 단계에서 '죽음과 생성'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단계가 전체 서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련이 필수적으로 나타나고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과의례의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면, 우선 원강암이와 할락궁이는 俗된 속성을 지닌 인간이었으므로 성스러운 공간인 서천꽃밭에 진입한다는 것을 불가능했다. 따라서 서천꽃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俗의 속성이 파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련과 죽음이라는 장치를 부여한 것이다. 즉 시련과 죽음은 필수적 요소였던 셈이다.

다음으로는 통과의례의 기능적인 측면과 연관이 깊다. 시련의 과정을 무사히 완수하게 되면 주인공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상이 이어지는데, 그 보상은 신분의 상승, 또는 지위의 상승이다. <이공본풀이>의 경우 역시도 '시련'의 과정을 무사히 완수한 주인공들은 모두 신으로의 지위 상승이 보상으로 주어졌다. 주인공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신화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영웅 신화의 주인공은 위대한 업적을 세운다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모험을 시작한다. 모험을 하는 과정은 주인공에게 시련에 해당된다. 시련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주인공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神이나 왕으로의 지위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통과의례는 사회적 또는 종교적인 지위의 변화를 획득하거나 부여받는 당사자와 그가 속한 집단의 혼란 및 변화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하는 기능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통과의례를 완수한 주체는 스스로 새로운 지위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그가 속한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시련' 부분은 주인공의 신분 변화와 새로운 지위획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단계이며, 서사에 있어 필수적인 장치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는 수용자의 설득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상벌의 명확성으로 인해 권선징악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된다.

### 3. 서천꽃밭과 再生

#### 1) 주화의 기능과 의미

서천꽃밭은 <이공본풀이>가 생성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으로, 주인공들의 삶의 목표이자 종착역이다. 이러한 서천꽃밭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서천꽃밭에 존재하는 주화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텍스트에 드러나는 주화들은 이본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은 사라도령의 설명과 활락궁이의 활용을 통해서 그 기능을 드러내고 있다.<sup>44)</sup>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 기능에 따른 주화 분류

| 기능 | 주화   |
|----|--|
| 懲治 | 불불을 꽃, 수레멜망꽃, 웃음웃을 꽃, 금유울 꽃, 악심꽃, 싸움홀 꽃, 가난홀 꽃                 |
| 還生 | 도환생꽃, 광오를 꽃, 솔오를 꽃, 오장육부 기릴 꽃, 말7를 꽃, 피 올를 꽃, 힘 오를 꽃, 환승꽃, 변승꽃 |
| 賞  | 부제될 꽃  |
| 生佛 | 생불꽃  |

활락궁이가 제인장재 일족에 대한 징치를 할 때 사용한 꽃 중에서 웃음웃을 꽃과 싸움홀 꽃, 수레멜망꽃은 대부분의 이본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 이외에 꽃들은 몇몇 이본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특정 인물에 대한 징치를 수행할 때 사용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주목할 점은 불이 붙는 꽃과 가난해질 꽃, 시들을 꽃 등을 통해서 화재와 가난,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 민중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생의 기능을 하는 꽃은 비교적 세세하게 나열되고 있다. 언급된 꽃들이 모두 원강암이의 환생에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도환생꽃은 몇몇 이본에서 원강암이의 환생을 ‘도환생’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환생에 사용된 꽃을 포괄하는 상의어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밖의 꽃들은 이름에서도

44) 본문의 내용을 참조.(pp.21~23.)

알 수 있듯이 뼈가 오르고, 살이 오르고, 피가 오르는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상과 관련된 꽃은 부제될 꽃이 있다. 부제될 꽃, 즉 부자가 될 꽃은 조흠대 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활락궁이가 서천꽃밭으로 향하면서 도움을 준 청태국 마귀할망에게 상을 내리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불과 관련된 생불꽃은 고산옹 본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본의 내용상 징치나 환생 등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전승과정에 있어 서천꽃밭에 존재하는 꽃들을 나열하면서 추가된 것으로 짐작된다.

기능에 따라 주화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텍스트의 서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화는 징치와 환생에 사용된 꽃들이다. 징치에 관련된 주화들 중 수레멜망꽃과 악심꽃은 일족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밖의 꽃들은 고통을 주기 위해 쓰이므로 고난, 시련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환생에 사용된 꽃들은 모두가 생명력을 고취시키는 '재생'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 2) 서천꽃밭의 의미

<이공본풀이>의 주인공들에게 있어 삶의 목표는 서천꽃밭에 도착하는 것이다. 즉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는 그들의 삶의 종착역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신화의 모든 서사는 서천꽃밭을 그 근본으로 한다. <이공본풀이>는 서천꽃밭으로 시작하여 서천꽃밭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흥윤은 서천꽃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한국 무의 꽃밭 상상계는 언제 어디서나 신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공간인 본향(本郷)이다. 예컨대, <이공본풀이>의 한 이본인 이승순 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송의 마지막에 “이공은 꽃불휘(꽃뿌리)입네다... 이공 신평엿수다.”하고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볼 때 본풀이는 뿌리, 즉 근본·근원이 된다. 본향은 한국 무 상상계의 꽃밭이고 훨씬 근원적인 함의를 갖는다. 그래서 서천꽃밭은 근원의 세계이자 근원의 상징이 된다. 신화에서 꽃밭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은근히 감추어둔 채 그 원리의 성격만을 펼쳐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sup>45)</sup>

서천꽃밭은 꽃의 뿌리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를 관장하는 것이 이공신이다. 앞에서 살펴본 주화의 상징적 의미와 등장인물의 삶 등을 토대로 서천꽃밭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45) 조흥윤, 『한국의 원형신화 원앙부인 본풀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p.30~35.

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천꽃밭에 존재하는 꽃들은 탄생, 재생, 죽음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서천꽃밭은 '죽음'과 '재생'이 공존하는 세계이며, '죽음'과 '재생'은 자연의 법칙이므로 자연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서천꽃밭은 고대인의 사고방식이 농축된 깨달음의 공간이다.

둘째, 주인공들에게 서천꽃밭은 그들이 도달해야할 목표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다. 그곳은 조흘대 · 고산옹 · 양창보 본에서 언급되는 '저승'일 수도 있으며, 옥황이 거주하는 '천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물을 건너면 닿을 수 있는 곳이기때, '천상계'이거나 또는 '하계'라는 수직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인간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수평적 공간으로 인식함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수평적 공간에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만 비로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서천꽃밭이다. 이렇게 볼 때, 당시 사람들에게 서천꽃밭은 신성한 공간이자 동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 즉 이상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천꽃밭은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는 의지가 반영된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가난에 대한 운명일 수도 있으며, 죽음에 대한 운명일 수도 있다. 이는 모두 俗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운명이다. 이러한 운명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함으로써 도달하고자 하는 공간이 서천꽃밭이다. 그래서 서천꽃밭은 운명극복의 의지가 반영된 공간이자, 당대 제주 사람들의 소망이 집약된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 V. 결 론

인간은 개인의 삶에서 존재론적인 상태, 신분, 지위의 변화를 거치며 살아간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반 켄넵은 ‘通過儀禮’라고 지칭하였다. 그는 인간이 우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반 켄넵은 우주의 법칙을 바탕으로 통과의례의 과정을 ‘분리 - 전이 - 통합’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반 켄넵이 언급하는 우주의 법칙은 ‘죽음’과 ‘생성’이 반복되는 ‘재생’의 법칙이다. 그래서 통과의례의 과정은 ‘죽음’과 ‘생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주의 법칙은 원시시대의 사람들이 깨달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통과의례는 죽음과 생성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과의례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죽음과 생성의 원리는 고대인들이 자연을 바라보며 얻은 자연의 법칙이자 그들의 깨달음이다. 종교적 제의나 신화가 융성하던 시대에 인간은 신과 같은 ‘영구적인 존재’로 남아있길 원했다. 고대인들은 죽음과 환생을 동반하는 행위를 통해 신적인 행위를 모방하였다. 즉 제의를 통해서 창조의 반복과 순환을 재현하고, 그 상징성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머물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대에서 입사의 상징으로, 죽음과 재생, 여행과 귀환의 모티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sup>46)</sup> 이런 점에서 <이공본풀이>는 고대시대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있는 신화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신화에 통과의례의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텍스트의 원형에 관한 문제를 지니는 <이공본풀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텍스트의 서사에 드러난 중요 화소를 중심으로 통과의례의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인물들의 지위 변화과정을 텍스트의 서사구조와 비교함으로써 서로가 매우 유사한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이공본풀이>에 드러난 통과 의례적 의미를 고찰할 수 있었다. 논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는 사건을 담당하는 중심인물과 공간, 사건들의 유기적 관계를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는 ‘떠남 - 시련 - 좌절’의 서사를 보이며, 부분적으로는 ‘고난 - 고난해결’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각 단계마다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즉 ‘떠남’의 단계에서는 사라도령이 담당하며, ‘시련’의 단계에서는 ‘원강암이’와 ‘할락궁

46) 김열규, 朱鈺, 「민담과 문학에 있어서의 입사식담」, 『민담학개론』 (일조각, 1997), p.232.

이'가 담당하게 된다. 특히 '시련'의 전반부는 원강암이가, 후반부는 '할락궁이'가 담당함으로써 사건 전개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에피소드 형식의 전개과정은 '좌정'에 이르러 하나로 합쳐지면서 매우 짜임새 있는 서사전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원강암이와 할락궁이에게 주어진 고난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이공본풀이>의 전체 서사에 송고하면서도 웅장한 울림을 주고 있다.

둘째, <이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중 '떠남'의 단계에서 드러나는 주요 화소는 '불공', '혼인', '여정'이며 이들은 모두 인물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통과의례의 요소로 볼 수 있다. 먼저 '불공'을 통해서 '집진국'과 '임진국'은 '아버지'라는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게 되며, 이 때 사건의 공간적 배경인 '절'은 격리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한편 '혼인'은 통과의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통과의례의 주체가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미혼자'에서 '기혼자'로의 변화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은 사라도령과 원강암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정'은 사라도령과 원강암이로 하여금 기존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셋째, '시련'의 단계는 <이공본풀이>의 전체 서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할락궁이의 징벌'과 '원강암이의 환생'이라는 핵심적인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원강암이'와 '할락궁이'는 공통적으로 시련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통과의례에 있어서 '죽음'의 원리가 드러나는 '분리 → 전이'의 과정에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주인공들은 이 과정을 통해 인간으로서의俗된 속성이 소멸됨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나타나는 공간적 배경인 '청대밭'과 '물'은 모두 격리의 공간 및 재생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넷째, '좌정'의 단계는 <이공본풀이>의 등장인물인 사라도령, 원강암이, 할락궁이가 모두 신으로 좌정함으로써 마무리되는 부분이다. 특히 원강암이와 할락궁이가 신으로 좌정한다는 점은 이들이 모두 '神'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아 새로운 집단에 통합되었음을 말하며, 통과의례에 있어서 '재생'의 원리를 내포하는 '전이 → 통합'의 단계를 거쳤음을 의미한다. 이 때에 수반되는 형태로는 환생과 재생이며, 환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여러 주화들은 '재생'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다섯째, 주인공들은 상태의 변화과정과 공간의 변화과정에 있어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데, 상태는 '인간 → 신'으로, 그에 따른 공간은 '가족이 머물던 집 → 서천꽃밭'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라도령과 원강암이의 경우는 '떠남 - 시련 - 좌정'의 단계에 접어들 때마다 상태나 공간의 변화가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할락궁이의 경우는 탄생의 시기가 이야기의 중반부라는 점과 위기의 후반부에 사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앞선 주인공들과는 전개의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통과의례는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욕망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므로 인물의 욕망 추구과정으로 볼 수 있다. 주인공들은 표면적으로 서천꽃밭으로 향한다는 욕망에서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면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통과의례의 과정 중에서 '전이'의 단계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이공본풀이>의 서사에서 '시련'의 단계는 핵심적인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이유는 통과의례의 기능과 무관하지 않다. 통과의례는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와 그가 속한 집단의 혼란 및 변화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통과의례를 완수한 주체는 스스로 새로운 지위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그가 속한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시련'은 주인공의 신분 변화와 새로운 지위 획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분으로, 서사에 있어 필수적인 장치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텍스트는 수용자의 설득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벌의 명확성을 통해 권선징악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문화적 질서가 유지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공본풀이>의 기본배경이 되는 서천꽃밭은 '죽음'과 '재생'의 원리가 공존하는 깨달음의 공간이며, 천상이나 저승이 아닌 인간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수평적 세계이다. 또한 주인공들의 삶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가난', '죽음' 등의 운명을 극복하는 의지가 반영된 공간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이공본풀이>의 서사적 측면에 대한 기존의 연구경향과는 다르게, '通過儀禮'라는 이론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연구의 관점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과제를 다른 측면에서 수행하여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하지만 '통과의례'의 이론을 통해서 문학의 원형이라는 신화로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텍스트의 내적 측면에서만 통과이례의 요소를 다루고 있어 텍스트의 외적 측면, 즉 의례적 행위인 큰굿 열두거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따라 '통과의례'의 관점에서 <이공본풀이>가 구송되는 의례적 행위의 과정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연구를 추후의 과제로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문무병 외, 『제주도 큰 굿 자료』, 제주전통문화연구소, 1994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2002
- 허남춘 외,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 \_\_\_\_\_,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_\_\_\_\_,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도서출판 각, 2007
- \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현용준 · 현승환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제29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6
- 赤松智城 · 秋葉隆, 『朝鮮巫歌の研究 上』, 동문선, 1990

### 2. 단행본

- 김선풍, 『민속문화이란 무엇인가』, 집문당, 1993
- 사재동, 『불교계 국문소설의 형성과정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7
-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 장덕순, 『한국문학사』, 동화문화사, 1987
- 조흥윤, 『한국의 원형신화 원앙부인 본풀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이문철, 『통과의례와 성』, 평단문화사, 2000
- 이수자, 『제주도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 장주근, 『풀어 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 \_\_\_\_\_,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 \_\_\_\_\_,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2
- \_\_\_\_\_,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현용준 외, 『탐라문화총서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998
- A.반 겐넵,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 J.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10
- M.엘리아데, 이은봉 역, 『성과 속』, 한길사, 1998
- M.엘리아데,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6
- S.비에른느, 이재실 역, 『통과제의와 문학』, 문학동네, 1996

### 3. 논문

- 강유리, 「죽음을 다룬 무속신화의 시간과 공간 구조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_\_\_\_\_,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 김창일,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연구」, 동아대학교, 2001
- \_\_\_\_\_, 「무속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제11권, 한국무속학회, 2006
- 김열규, 朱鈺, 「민담과 문학에 있어서의 입사식담」, 『민담학개론』, 일조각, 1997
- 김현선 · 현용준 · 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 변종현, 「통과의례의 양상과 그 기능 - A.V Gennep의 이론을 중심으로」, 『국문학논집』, 제 14집, 단국대학교, 1994
- 부영란, 「제주신화의 구조에 나타난 상징체계와 의미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 사학위 논문, 2004
- 사재동, 「안락국태자전 연구」, 『충남대 어문연구』, 제5집, 충남대학교, 1967
- \_\_\_\_\_, 「안락국전의 연구」, 『충남대 어문연구』, 제13집, 충남대학교, 1984
- 서대석, 「서사무가 연구」, 『국문학연구』, 제8호, 국문학연구회, 1968
-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 \_\_\_\_\_, 「제주도 큰굿의 구조적 원형과 문화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제7집, 제주도연구회, 1990
- \_\_\_\_\_,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학사적 위상 - 이공본풀이계 서사물의 변용과 의미(1)」, 『제주도연구』, 제10집, 제주도연구회, 1993
- \_\_\_\_\_, 「무속의례의 꽃장식, 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 『한국무속학』, 제14권, 한국무속학회, 2007
- 이재실, 「신화적 상상계와 샤머니즘」, 『샤머니즘연구』, 제2권, 한국샤머니즘학회, 2000
- 장주근, 「서사무가의 시원과 민속문예사상의 위치」, 『문화인류학』, 제5집, 문화인류학회, 1973
- 정진희, 「제주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제7호, 태학사, 2002
- 오대혁, 「〈안락국태자경〉과 〈이공본풀이〉의 전승관계」, 『불교어문논집』, 제6권, 한국불교어문학회, 2001
- 천병식, 「석보상절의 전기문학적 가치」, 『고전문학연구』, 제3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 허남춘, 「제주도 서사무가와 한국신화의 관련성 고찰」, 『탐라문화』, 제2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제148호, 국어국문학학회, 2008
- 현승환, 「濟州島 喪 · 祭禮의 節次와 信仰的 意味」, 『탐라문화』, 제1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 Arnold Van Gennep, 『The Rites of Passage』, Paris:Emile Nourry, 1909

<Abstract>

A Study on  
Narrative Structure and  
Meaning of Rite of Passage in IgongBonpuri

Yang, Yong-jun

A major in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Seung-hwan

Rite of passage, which is a transitional process of ontological conditions, statuses, and ranks that humans go through in their lives, is based on fundamentals of 'death' and 'birth'. This fundamentals of death and birth, the principles of nature, were delivered to the ancients while they gazed upon the nature. In the time when religious rituals and myths were flourishing, humans wished to be preserved as 'immortal beings' like gods. In this sense, the ancients emulated divinity through ceremonial rituals that accompany death and birth. This study is on the rite of passage and its meanings on the narrative aspects of <IgongBonpuri>, and its results are:

First,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IgongBonpuri> were recognized by examining each versions of the story according to plot structures. In overall, it had a narrative course of 'departure - hardship - arrival', with structures of 'trouble - trouble resolved' in between, and presents magnificent and noble esthetic values.

Second, the progress of rite of passage were visible through the text, as all major elements of <IgongBonpuri>are closely interrelated with conditional changes of main characters, and by

comparing these to narrative structure of the story, it became clear that conditional or status changes of the characters were regularly appeared in accordance with the narrative course.

Third, conditional changes of main characters began from their desire to overcome their fate, and 'hardships' along the process are means to gain legitimacy of promotion to gods. Finally, the flower garden of Seocheon, the ultimate aim of life for main characters, has its meaning as a horizontal world, a reflection of willpower to overcome fate and as the space of enlightenment where fundamentals of 'death' and 'life' coexist.